

김정은 弔花

세월호 특별법

교황방한 뒷말들

대한민국 언제까지 이럴건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한심한 작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뒷이야기들.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주기를 맞아 북에서 보내온 弔花에 묻어 있는 毒性...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뒤숭숭하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주기 추도식을 주도했던 김대중평화센터 등 직접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할 얘기들이 있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순수하게만 볼 수 없는 造化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첫째,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현충원에 적의 괴수인 김정은이 보낸 조화를 비치했던 일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북한도당은 '김대중 5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싸우다 散華한 우리 장병들의 넋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농락하기 위해 弔花를 이용했을 뿐이다. 북에서 조화를 보낼 테니 받아가라고 하자 박지원 의원은 전 국정원장 임동원, DJ의 둘째 아들 김홍업씨 등과 함께 북에 가서 김정은 조화를 받아다가 국립현충원 추도식장에 모셔놓았던 것이다. 북의 술수가 호국영령들의 영혼을 더럽힌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의 조화보다 특별히 우대해 놓은 사진을 보면 憤이 끓어오른다.

김정은의 조화는 붉은 카펫 위에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조화는 맨 바닥에 놓여있었다.

추도식이 끝난 뒤 주최측은 김정은의 조화는 따로 챙겨 김대중평화센터에 보관했다고 한다.

둘째, 세월호 사태에 먹살을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고바우 만평



尹一兵 사건후
이것 또 살인병장 아닐까



이석희

·본회 논설위원
·전 KBS 보도국장

김대중 5주기 이용
북한 교묘한 술수
현충원 영령 농락

유가족에
끌려다니는 정치판
국민대표 자격있나

북한 동포엔
복음전파
할 수 없었나

정치판.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주의 주장으로 생떼를 쓰다시피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언론과 식자층,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 일부 불순한 사람들,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이냐가 국가적 과제다. 여야가 협상을 통해 합의했던 세월호 특별법안은 유가족들과 야당내 강경파의 저항 때문에 없던 일이 된 뒤 다시 협상한 끝에 어렵게 합의한 재합의안도 유족과 야당 내 강경파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직 유족들의 주장만이 있을 뿐 여야의 합의도 정치도 국회도 소용없게 돼 버린 기막힌 비상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여당의 특별검사 2명의 추천권까지 사실상 야당과 유가족들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구하고 유족들은 이를 거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깍뎂기'에 불과하다"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특별법 협상을 시작하던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고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변호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문재인의원. 대통령 출마까지 했고 당내에서 막강한 친노파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 의원은 유족들과 동조하는 단식 투쟁까지 함으로써 자신만이 유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같이 행세하며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있다. 나라를 위해, 국민 전체와 미래를 위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애국심과 확고한 신념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이다. 자기 자신의 잇속과 영달,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나라야 어찌되든 알 바 아니라는 식의 小人輩들 때문에 정치를 불신하고 국민 대다수가 정치인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셋째, 한국을 방문해 복음을 전파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의 모든 행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다. 교황에 노란리본을 달아준 사람, 나무심자가를 전한 사람, 편지를 준 사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 등 교황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나친 배려를 했다는 소리도 있다. 124위 순교자 시복식 미사와 아시아청년대회를 위해 기도해 준 것처럼 소외되고 고통받는 북한동포에도 복음을 전해줬으면 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그 회복을 강조한 교황이었다. 우리 국가사회-대한민국號는 지금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茫茫大海에서 나침반마저 고장난 난파선처럼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도처에 깔려 있고 언제 어디서 땅이 꺼져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싱크홀(sink hole)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도사리고 있다. 전에는 없던 일들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전에는 감춰져 있거나 모르고 있던 일들이 드러나는 세상이 됐을 뿐이다. 우리들에게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와 시대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대한언론인회 임직원 일동

年회비 납부 바랍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강한 군대라야 軍內폭력 사라진다

연거푸 터진 군내 ‘가혹행위’ 사건은 잠시 떠들다가 말 성질의 사건이 아니다. 그 수법이 얼마나 잔혹했으면 ‘악마를 보았다’는 연쇄 살인범 영화의 타이틀까지 인용했겠는가. 일련의 사건들이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 일어난 것이 사실인 이상 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는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으로 안 보이는 착시현상

군내 가혹행위는 그 수법이 비인간적이라는 데서 충격을 주었다. 이미 신문 방송에 요란히 보도된 뒤여서 그 사례들을 다시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에는 ‘인간성’ 찾기는 고사하고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그런 사실이 이번에 세상에 널리 퍼졌으니 나라 체면도 말이 아니다. 전에도 가혹사건들은 자주 일어났었다. 그런데도 직속상관이 모르고 군 고위층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더욱 중대한 문제가 된다. 군 보고체계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휴전선 철책 선에서 있었던 ‘노크 귀순병’사건의 창피스런 예를 들출 것도 없이 지금 한국군대는 총체적으로 나사가 풀려있음이 분명하다. 그러고도 60만 대군을 운운하고 정예강군을 내세울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번 사건은 더 늦기 전에 터진 것만도 불행 중 다행(?)이다. 대책을 세울 최후의 순간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다시 우리 군의 거둬나는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겉 포장지만 그럴싸한 ‘60만 대군’의 虛像에서 깨어나 다시 잃어버린 정예강군시대로 회귀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 생활에 적응 못하는 문제 사병들을 더 이상 ‘관심사병’으로 분류해 군대에 놔둘 것이 아니라 차제에 아예 조기 전역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때다. 병영생활에 적응 못하고 사고만 일으키는 문제 사병들은 다른 사병들까지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찍이 퇴출시킴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海·空軍力 강화 바람직

이런 당면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60만 병력에서 10만 명 정도를 감축한 50



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6·25참전 언론인회 부회장

문제士兵 퇴출
兵力 10만명 감축

첨단무기 도입해
정예부대 육성해야

士兵 복무기간도
최소 24개월로

만 명으로 다시 정예강군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전쟁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 사병들을 군에서 조기 퇴출시키고 10만 명 감축으로 절약되는 예산으로 고성능 첨단무기를 도입하는 데 투자하면 명실상부한 강군의 조건이 충족될 것이다. 이 방법은 또한 현재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절대 부족한 병력자원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부실한 자재로 만든 60층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의 50층 짜리 새 건물로 탈바꿈시키자는 얘기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문제는 절대다수의 병력을 보유중인 육군의 대폭 감량이 불가피하다는 점일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의 국가안보의 흐름은 지상군을 줄이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앞으로는 1가정 1자녀 키우기 운동의 보편화로 갈수록 병력자원이 고갈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병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복무기간을 단축한것은 무리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궁여지책으로 군대의 총체적 부실과 연결된다. 따라서 현재 실시중인 21개월 복무로는 군대가 제구실도 못하는 미숙아나 다름이 없다. 겨우 전투요령을 익힐 만하면 제대일이 다가오는 안보의 결정적 취약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기계화 부대의 병력을 훈련시키자면 최소한 3, 4년은 필요로 하는데도 1년반 남짓에 옷을 벗게 되니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 대안은 지금의 죽도 밥도 아닌 21개월을 최소한 24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다. 24개월도 10년이나 되는 북한군의 복무연한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지금 핵폭탄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이 언제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호전주의자들이 미사일의 착탄거리 안에서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의 안보취약점을 미국이 메워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국에 우리 안보를 의존할 것인가. 우리는 완전 자주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을 초미의 당면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문]

1면에서 이어집니다.

걱정만 하거나 비난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되발을 제거하고 싱크홀을 찾아 모두 메워야 우리는 비로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라고 할 정도의 결의로 대통령이 법안과 법

개정, 정부개편, 인적쇄신을 하려고 해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언론과 정치권이 앞장서서 일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험뜯고 문제점만 들추시고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며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에서 어느 누구인들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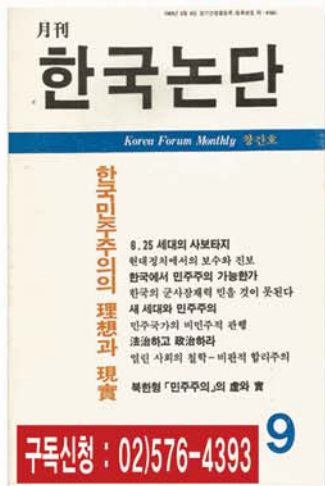
겠는가? 게다가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는듯한 北은 남한 각계각층에 심어놓은 비밀공작원들에게 수시로 지령을 내려 보내고 불순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혼란 조성과 힘 빼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라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제 민심은 세월호를 넘어 경제활성화와 국가개조 작업에 나서자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철부지 날뛰듯 하는 방송 신문, 선부른 논객과 지식층, 사리사욕에만 눈이 벌겍게 충혈돼 있는 정치꾼들... 이제는 그만들 하고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 [국문]

국가 민족만을 생각해온 한국논단 25년

국운과 함께 의욕넘치고 융성했다가 수난거쳐 재기·쇠퇴 거듭



의욕넘친 창간-노태우시대(1989년)



융성기-김영삼시대(1993~1997)



수난기-김대중·노무현시대(1998~2007)



재기 그리고...-이명박이후(2008~현재)

부분 募兵제도입 검토할때 됐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복무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고치자는 주장도 강하다. 그러나 지금 완전 모병제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100만이 넘는 현역병을 갖춘 북한의 군사위협을 감안할 때 지상군 50만 명선은 유지해야 하고 이 병력을 모병제로 충당하기는 어렵다. 전문하사관제를 확충하고 병사의 수효를 줄여가며 부분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전군 모병제로 전환해 나아가야 한다.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

국민개병 원칙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 한국 국민 중 남자는 모두 병역 의무를 지고 있다. 해마다 적령기에 달한 남자들을 병력 자원으로 삼아 이 중에서 필요한 숫자만큼 군에서 징집하는 것이 현행 제도이다.

6·25전쟁이 휴전으로 들어간 후 한국군은 육군 약 50만 명, 육·해·공군 포함하여 총 64만 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육군병력 충원을 위해 복무기간 36개월의 징병제를 채택했다. 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병사의 숙련도를 높게 유지하려면 3년의 복무기간이 필요하고 매년 충원해야 할 병사의 수를 줄여 자질이 모자라는 자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러나 20대의 소중한 시간을 3년씩이나 군에 복무시키는 것은 개인에게 너무나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의무 복무연한을 점차 축소해 왔다. 30개월, 28개월, 24개월까지 줄여오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다시 이를 매년 1년씩 줄여 6년 후인 2013년까지 18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 이를 실천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국방개혁 2020’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하면서 우선 21개월까지 줄여든 복무기간을 그대로 동결시켜 오늘에 이른다.

현행의 21개월 복무연한이 안고 있는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병사의 숙련도 유지가 어렵다. 장비 운용에 친숙하려면 최소한 1년의 숙달 기간이 필요한데 친숙해지면 6개월 후는 제대시켜야 한다. 미숙한 병사가 고도장비를 다루게 되어 기대하는 전력유지가 어렵다.

둘째로 충원 소용 병력수가 늘어나 자질이 모자라는 자원까지 모두 징집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30개월이던 1985년에는 징집대상 중 50% 정도를 골라 현역병으로 충원했으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든 작년에는 징집대상 중 90% 이상을 현역으로 징집했다. 문제가 있는 병사도 현역으로 충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윤 일병 사건’과 같은 사건도 발생하고 장비의 훼손율도 높아지고 있다.

셋째로 더 큰 문제는 부사관과 초급 장교 지망자가 급감하



이상우

- 본회 회우
- 전 조선일보 기자
- 전 한림대 총장
- 현 신아시아연구소장

전문하사관제 확충 兵士숫자 줄여 가며 징병제도 고쳐가야

軍-民 호환 직종 선정 민간인 참여 확대로 현역수요 줄일 수도

여 간부의 질이 지휘받는 병사보다 못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병으로 21개월만 복무하면 병역 의무를 다하는데 3년씩 군에 묶여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때 몇 십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던 학사장교, ROTC 장교 지망생이 급격히 줄어들어 충원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의 병 21개월 복무의 징병제로는 병력 충원도, 병의 숙련도, 그리고 초급 간부의 질 유지도 모두 어렵다.

모병제 전환 가능한가

현대전은 고도의 장비를 다루는 ‘전문 군인’이 싸우는 전쟁이다. 군복무를 평생의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들만으로 군을 편성하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여유 있는 나라, 전쟁위협이 크지 않은 나라 중에는 전면 모병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많다. 모병제는 질 높은 병력 자원을 선발하여 현역에 충당할 수 있어 전력 증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근무시킬 수 있어 신병 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나 문제도 많다.

첫째는 비용이다. 한국의 경우 징병제를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면 매년 6조원 정도의 경비가 더 든다. 금년도 국방예산이 35조원임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다. 둘째로 더 큰 문제는 연봉 2천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 직업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젊은이가 별로 없어 모병제만으로는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봉급만으로는 병력 충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군복무가 사회진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특단의 제도가 없는 한 모병제로 소요 병력을 충원하는 것은 어렵다.

부사관 등 경력 사회에 연계시켜야

징병제는 문제가 너무 많고 전면 모병제로는 병력 충원이 어렵다면 절충안으로 부분 모병제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군민호환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실험실시하고 있는 전문부사관제를 확대하자. 의무 복무기간이 끝난 후 계속 군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병사를 전문부사관으로 임용하여 직업 군인으로 양성하는 방법이다. 전문부사관 지망자가 늘어나면 이에 따라 징병 대상자를 줄여 나갈 수 있다.

둘째로 부사관과 장교의 군복무 경력을 사회 경력에 연계시켜주는 장치를 만들면 수준 높은 초급 간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때 모 사립대학교에서는 교수의 봉급과 진급 기준이 되는 경력연한(YAC)에 군복무 기간을 100% 반영하여 주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간기업에까지 이런 제도를 법제화하여 확대해 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현재 현역 장병이 담당하는 일 중에서 민간인이 맡아 할 수 있는 일을 선별하여 민간인에게 맡김으로써 현역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현대전에서는 직접 총검을 들고 적병과 전투를 벌이는 전투병보다 후방에서 장비조작 업무를 담당하는 병력이 더 많다. 군민 호환 직종을 선정하여 민간인 참여를 확대하면 현역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사관학교 등 교육기관의 교수직은 거의 민간인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전에 참전한 미군 현역병은 14만 명이었는데 계약에 의해 수송, 경비 등 용역을 맡았던 민간인 PMC(Private Military Company) 직원은 그보다 더 많았었다.

끝으로 동원예비군 규모를 확대하여 현역병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역 복무를 끝낸 후 일정 기간 매년 1~2개월 동원훈련을 받는 예비전력을 잘 운영하면 현역 충원 부담을 덜 수 있다.

결국 국민의 국방의식이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술적, 제도적 문제를 넘어서는 원초적 문제가 있다. 국민의 애국심과 국방의식을 높이는 문제이다.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내가 지킨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면 징병제든 모병제든 문제될 것이 없다. 국민 모두가 군복무를 당연시하고 나아가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에서는 병역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병력 충원 문제의 근간은 따지고 보면 국민의 국방의식이 문제이다. 

'100자 발언대'

天國과 地獄의 공존

① 위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래로는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삼킬만한 큰 구멍(싱크홀)이 뿔뿔히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두 얼굴의 모습. 이제는 걸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병든 서울의 두 얼굴에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할 시기이다. 지 용 우(본회 논설고문·전 경향신문 논설주간)

장외세력에 조종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

②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외 재야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 야당 출신 원로나 중진들, 정치전문가들은 국가운영에 대해 책임질 필요도 없고 이념 충돌이 많아야 자신들의 입지가 확대되고...그런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이상 집권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천 상 기(본회 회우·전 경기대 초빙교수)

리틀야구 세계정상... 내일의 희망 쏘았다

③ 어른들 보란 듯, 어린이들이 불패신화를 기록하며 세계정상에 우뚝, 큰 일을 해냈다. 최강 미국을 꺾고 29년 만에 세계 리틀야구 우승을 차지한 그 승전보는 2008년 베이징을 립픽대첩과 견줄만한 쾌거다. 월드시리즈에서 일본을 두 번이나 물리치고 홈런포와 삼진투로 미국을 제압한 기개가 놀랍기만 하다. 답답한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했고 번개 세리머니에서 보듯 내일의 희망을 쏘아 올렸다. 이 태 영(본회 상담역·서울시체육회 부회장)

이석기 항소심 판결 司法不信 키워

재판의 사회적 기능의 하나는 골치 아픈 분쟁거리를 시원하게 최종적으로 해결해 준다는데 있다. 그래서 “송사는 졌지만 재판은 잘하더라”는 우리 속담도 나왔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판결은 우리 사법체계에서 항소심의 존재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판결은 국민의 사법불신의 低減이 아니라 증가에 일익을 담당했다.

사람의 자유·생명·재산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결이 고뇌에 찬 심사숙고의 산물이어야 하나 그것은 판결로 표출되면 되는 것이지 민의에 따른 선출직 국가기관의 경우처럼 홍보나 선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만 말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판결의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양해해달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 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양해요청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내란음모 ‘합의 필요’ 판결 이해 안돼

동일한 사실을 놓고 1심에서 선고한 내란음모를 번복 무죄로 선고한 항소심판결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항소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에는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소수인 살인음모죄의 경우와 달리 조직원 다수(130명)가 참여한 이 사건 비공개회합의 경우에 요구되는 내란의 ‘합의’는 내란예비나 실행의 착수와는, 그리고 선동과는 각기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합의를 요한다 하더라도 이미 뜻을 같이 하는 조직원 앞에서의 ‘선동’과 묵시적 합의는 차별화될 것인가? 이 그룹외의 청중을 향한 선동이라면 몰라도, 더구나 문제의 모임이 있었던 2013년 전반기는 박 정부 출범직후로 3·4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겹쳐 북의 핵실험, 정전무효 선언, 미사일발사, 핵무기사용위협 등이 연이어져 북에 의한 전면전으로부터 국지적 전쟁도발까지의 위기가 고조되던 시점이다. 이에 상응하듯 한 이 시점의 이석기 국회의원 중심의 조직 모임과 그 곳에서의 문제의 (통신기지·유류저장 등 기반 시설 폭파, 무기제조·조달 등)발언들을 내란음모 외에 어떻게 다르게 평가할 것인가.

또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법정 형량이 동일한데 항소심 판결은 원심의 12년 형을 3년을 깎은 9년 형을 선고했다. 이 같은 항소심의 감형조치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 항소심판결도 원심의 법리인정 거부 또는

특별기고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재판장 선고 앞서 “양해 해 달라” 발언 무엇때문인지 의아

법정형량 같은데 3년감형 조치 정당화 될 수 있나

이와 함께 형량을 으레 깎아주는 항소심의 일반적 경향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항소·상고율 높이는데 기여 우려도

그러니까 이를 기대해서 1심판결이 나오면 으레 항소하게 만들고 또 이에 불만인 당사자가 상고까지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국 법원판결에 대한 승복률을 떨어뜨리고 항소율·상고율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상고하는 수없이 많은 사건의 해결에 빠져 대법원이 전국적 법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 수행을 소홀하게 만들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사법부는 상고법원제, 상고허가제, 대법관증원제 등 대법원으로 하여금 적절(manageable)한 수의 상고사건을 놓고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만들 여러 개혁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판결은 사법부 연래의 개혁의 고민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사법개혁의 기본은 당사자를 승복하게 만들만큼 원심재판을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에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고뇌에 찬 심리의 결과로 나온 이러한 충실한 원심재판의 결과인 원심판결을 항소심·상고심에서도 존중해주는 상소제도의 마련에 사법부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억울하면 상소하라”는 법관의 인식이 깔린 심급제도를 그대로 둔 채 위의 개혁안만으로는 국민의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개혁은 나올 수 없다.

아무튼 이 항소심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기대된다. 한편 이 번 항소심판결은 내란선동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자유선거제도·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자유체제의 혜택을 100% 이용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자유체제를 전복하려 통진당이 관련되어 조직적으로 음모·선동한 이 사건의 자유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위해성을 증거를 들어 판결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통진당사건의 해산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믿는다. 통진당의 목적(진보적 민주주의 등)이나 활동(내란선동·국가보안법위반 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자유체제)에 위배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4]

일본 도쿄의 고단샤(講談社) 서점에 嫌韓 코너가 따로 생길 정도로 지금 일본은 한국을 헐뜯기에 혈안이다.

上古로부터 한민족은 자구능력이 없는 나약한 종족이며, 한반도의 위쪽은 漢四郡이, 아래쪽은 소위 任那日本府가 각각 차지하여 300년간 경영했고, 중세에는 몽고의 來侵 100년, 왜구와 왜란 7년의 국토 초토화, 근세에는 36년간 식민침탈로 나라의 말과 이름까지 빼앗겨 버려 껌대기만 남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고 모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광란은 어제 오늘만의 행태가 아니다. 때문에 60여년전 ‘한국은 지옥같은 나라이고 일본은 천국’이라는 좌담을 통해 한국을 헐뜯던 일본 언론에 격분, ‘일본에 보내는 公開狀’을 던진 金素雲 선생을 잊을 수가 없다. 金 선생은 그의 木槿通信에서 일본의 과거 생성 역정을 낱낱이 밝히고 오늘의 일본이 있기 까지 한국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물었다.

그는 무궁화를 뜻하는 木槿通信에서 ‘눈을 감고 기미요(神代) 이래 2천여년 동안 일본이 걸어온 역사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중략) 아스카(飛鳥)와 나라(奈良)를 비롯하여 헤이안(平安)가 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에서 겐로쿠(元祿)에 이르기까지 다사다난한 문

화의 起伏으로 볼때 大陸에 준 것은 하나도 없고 체질에 맞지 않는 문화는 한반도란 매개체를 경유함으로써 그 소화불량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략) ‘中華大陸이 일본문화의 어머니라면 한반도는 알뜰하고 무상으로 보살펴준 乳母였습시다’고 지적했다. (木槿通信·語文閣刊·p29). 이처럼 과거 우리 한반도를 통해 외국에 쏟아져 들어간 선진 백제 문화는 아스카와 나라시대에 그 절정을 이뤘고 우리가 한때 ‘메이드 인 유에스 에이’ 하면 눈을 감고 믿어 버렸던 소비심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왜국도 백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활 풍조가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의식 구조였다.

金素雲 선생은 이 같은 일본인 생활

金素雲과 木槿通信



이 철

·본회 원로회우
·전 대한상공일보 경제부장
·왜고사연구회 연구위원

속에서 ‘구다라 나이 고도 유우나요’ 즉 ‘百濟에 없는 것은 말 하지도 마라’는 속담을 발견했다. (새 韓日辭典·휘문출판사·1963년·p586). 이 속담 한마디의 새로운 발견으로 金 선생은 1500년 이란 시공을 뛰어 넘어 화려했던 그 당시 백제문화의 선진성을 그대로 오늘에 되새겨 놓

은 것이다.

선생은 인생 황금기 20여년을 일본에서 보냈고 일본의 저명한 문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당시 방방곡곡에 깔린 구전민요를 채집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이 속담은 너무나 값진 발견이며 선생의 ‘日本에 보내는 公開狀’의 木槿通信과 함께 쌍벽의 쾌거라 하겠다.

金素雲 선생은 이 木槿通信에서 ‘우리가 오늘날 가졌다는 것은 가난한 것

과 초라한 것뿐 자랑할게 없다. 그러나 일찍이 다른나라에 까지 이식되던 우리 문화의 대부분이 당신네 나라 일본에 수출됐었다. 여러분은 왕인박사의 기념비를 자주 볼 수 있을것이다. 일본에 처음으로 한문문화를 이식한 우리 선인의 한 분’이라고 했다.

百濟는 대륙과 왜에 5부(동서남북, 중앙)와 그 밑에 22개 擔魯(談路)를 두고 왕실의 자제나 장수들을 王이나 侯로 封하고 경영했다. (梁書 百濟傳) 또 周書 49권 百濟傳은 ‘自晉宋齊梁, 據江左右’로 晉世부터 梁世까지 오랫동안 兩岸을 경영했다고 적었으며, 백제의 본적 대외 진출은 가야에 이어 건너간 백제의 근초고왕(近肖古王·AD 364-375)과 근구수왕(近仇首王·AD 375-384) 부자로부터 동성대왕(東城大王·AD 479-501) 재임 때가 절정을 이뤘고 이때는 아예 백제 조정에 日宮部를 두어 백제 관리와 匠人을 순환 근무케 했고 백제 무령왕(武寧王·AD 501-523)때에는 이를 백제조정의 東朝로 하였다.

百濟의 對倭경영이 활발해 지면서 왜국 땅은 온통 백제 사람으로 찼고 ‘스이고 여제(抽古女帝) 원년 정월 아

5면으로 이어집니다.

한국 언론은 公器인가 凶器인가

언론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소금이 돼야 한다.

언론에 무한한 애정을 가졌던 미국독립선언서 기초자 토마스 제퍼슨의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은 언론 자유의 중요성과 함께 책임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公共의 목적에 부합되게 나아가야

이들 두명제는 언론은 사회적 公器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언론자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과 집단의 사익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되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공기의 정신이다. 부정과 비리를 과해쳐 사회를 정화시키고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공동체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공기의 역할이다. 그렇다고 언론자유를 위촉시켜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허용하는 것이 민주제도에서의 언론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을 사회적 公器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세월호사건과 윤일병폭행사망사건 등 최근 일련의 사건보도를 둘러싸고 곳곳에서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각종 매체가 늘고 다양화되면서 마구잡이식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언론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종으로 치닫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치유하기보다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언론이 사실의 보도자이기보다 ‘선동꾼’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공해수준을 넘어 흥기에 가깝다고 개탄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의 가장 기초는 사실보도이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사건의 본질을 전하고 그위에 해결점을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사실확인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사실(fact)을 종합해 진실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성과 조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은 傳言者에 머무르고 ‘카더라’ 보도를 하고 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여과없이 다루고 있다.

세월호사건의 ‘다이빙 벨’ 보도를 떠 올려 보자. 배속에 갇힌 많은 실종자를 찾아내기위한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이빙 벨을 내려보내면 그속에서 24시간동안 작업할 수 있다는 소식은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모두들 흥분했다. 그러나 다이빙 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번 물속에 넣어 봤지만 그속에서 단 몇분도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보도가 나온 과정은 아무런 검증없이 해당회사 대표의 말만 믿고 그대로 보도한 결과이다. 그것도 ‘단독보도’란 이름을 걸고서 말이다. 허위사실을 단독보도한 꼴이다. 이런 풍조속에 일부 언론 특히 방송은 ‘단독보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해당회사들로서는 회사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겠지만 이런 류의 보도는 시청자와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킨다.

사실 확인은 뒷전, 때거리식 보도

때거리식 보도도 문제다. 문창극사건의 경우 KBS가 교회장로가 된 것을 기념해 문씨가 신도들에게 한 강연내용의 단편적 사실만 끄집어 내 ‘친일분자’ ‘반민족분자’라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강연내용의 전체적 맥락은 그것과 전혀 달랐다. 그런데도 이를 바로잡은 언론은 하나도 없었으며 KBS보도는 사실로 굳어져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씨는 국회청문회장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하고 말았다. 사실확인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보도원칙을 지키지 않고 남을 따라하는 追隨보도 행태는



도준호

·본회 논설위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윤일병사건으로 軍을 범죄집단인양 마구잡이 매도

사실의 보도자 아닌 ‘선동꾼’ 같은 행태

記者 재교육등 자질향상 노력해야

우리언론의 악폐중의 악폐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윤일병사건도 이런 보도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윤일병을 폭행 사망케 한 선임병의 야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나 국민들입장에서는 땅을 칠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를 것처럼 세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군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온당한 것일까.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도 문제다. 윤일병사건은 군대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선임병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물론 군의 지휘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육군에만 이른바 ‘관심사병’이 8만명에 달할 정도다. 저출산과 부모들의 자녀과보호로 인해 정신적으로 나약한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고 있으며 이들을 2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들의 본성을 바꾸기는 어렵다. 윤일병사건은 군내부 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군대조직자체가 무슨 범죄집단인양 마구 채찍질하는 상황을 보다못해 군 일각에서는 최근 언론보도행태를 마녀사냥식보도라며 “이번사건으로 참모총장이 사퇴했음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 들지 않고 정치권과 언론·시민단체가 거기에 편승해 기름을 붓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군원로는 사고때마다 반복되는 처벌위주의 해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상규명과 대책보다 처벌범위와 수위를 신경쓰다보니 사건발생→군수뇌부 석고대죄→눈치보기식 처벌→사건재발의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사건중심주의에다 한순간에 들끓는 냄비식 보도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면 우선 그것을 모면하기위해 처벌부터 한다는 것이다. 언론 또한 처벌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는 관심이 없다보니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매몰 안타까워

국방부고위관계자는 “언론의 과잉보도로 인해 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군은 전쟁을 하기 위한 특수조직이므로 일반사회와 똑 같은 잣대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언론도 이제 보다 성숙하고 공기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감성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보도를 기본사명으로 해야 한다. 양비론이 아닌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태도도 견지해야 한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어떤 언론이 세월호사건이 난지 1백20일이 훨씬 지났는 데도 아직도 거기에 매몰돼 빠져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 지 돌아 볼 일이다.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울고불고하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하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취재의 기본과 원칙,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 공동체에 대한 사랑. 마구잡이식 보도가 아닌 보도해야 할 것과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 국가관, 필부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한다. 언론사들이 능력과 자격을 갖춘 기자들을 채용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통해 기자들의 능력을 향상 시켜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다. [국문]

4면에서 이어집니다.

스카에서 법흥사 건립의 서까래를 세우는 날 朝臣百官 100여명이 모두 백제 옷과 백제 관복을 입고 儀禮를 했다. 구경하는 사람이 모두 기뻐하였다’ (扶桑略記·AD 592) 또 ‘AD 600년 말까지 90%는 백제인 이며 그들은 고도의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를 경영해 왔고 백제 풍물과 백제 옷, 백제 말을 쓰는 등 백제 일색이었다’고 역사 자료는 적고

있다.

木槿通信은 다시 한국과 일본의 숙명적 인연을 말한다. ‘개인의 이웃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민족의 이웃, 국가의 이웃은 떠나버릴 수 없고 땅덩이를 실어서 이사 할 수도 없다. 한국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비통은 일본이 잘 알 것이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쓰라림과 불행을 우리는 이미 겪어왔다. 그래서 역경에 있어서 강한 민족이다.

우리는 또 하나의 섭리를 믿는다. 사나운 바람, 매서운 서리를 견디고 땅 속에 있던 한 톨의 보리알이 움을 틔운다. 이것이 민족의 地熱이다. 이 지열이 없었던들 우리는 몇 세기 전에 벌써 멸했을 것이다.’라는 비장하지만 당당한 마무리를 일본 사람들에게 던졌던 것이다.

金素雲 선생은 1951년 7월 ‘한국은 地獄의 나라이고 일본은 地上天國’이라는 일본 ‘선데이 매일’의 장황한 座談

기사를 묵과할 수 없어서 ‘일본에 보내는 公開狀-木槿通信’을 집필, 대한신문에 연재함으로써 戰亂속에 풀죽어 있던 우리 민족의 기상을 굳건히 대변하고 그해 1951년 11월 日譯文을 다시 中央公論에 특별기고, 전재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조센징은 모조리 죽여라’ 등 험악한 구호를 외쳐 대면서 폐지여거리 데모까지 하는 요즘 일본의 험한 풍조에 金素雲 선생의 木槿通信이 새삼스레 커보이는 오늘이 아닌가한다. [국문]

日産經 신문 보도 언론 자유 아니다

사실 이런 글은 쓰기가 싫다.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이 이웃나라 국가 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추측성 내용으로 모욕한 기사를 거론하는 일은 점잖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공론화를 부추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자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보기에는 황당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이다. 산케이는 8월 3일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를 만났나’는 기사를 내보냈다.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증권가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를 인용 보도한 것이다.

한국인 모두 불쾌한 감정느껴

대통령은 공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특이한 신분의 정치인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여성이다. 그의 이미지는 여성이자 독신이라는 청결함에 직결된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산케이의 추측성 보도는 대통령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입힌다. 산케이의 이번 보도는 대통령 한 사람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한국인이란 일본 언론의 무책임한 명예 훼손적 기사에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것이다. 산케이신문 기사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태는 언론자유와 범주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다.

한일 양국은 협조 공생하지 않으면 안 될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안보와 국제정치적인 입장에서조차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지금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이다. 2차 대전 기간의 군위안부 문제, 정치적인 극우화 경향, 역사인식 등이 두 나라의 친선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부 극우파의 혐한(嫌韓) 시위도 양국 국민의 악감정을 부추기고 갈등을 부추긴다.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언론의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나는 40년에 걸치는 기간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 언론에 어떤 탄압을 가했는지, 그 실상을 실증적으로 탐구해 왔다. 방대한 자료집도 만들었다. ‘일제하 민족언론 압수기사모음’(전 2권), ‘조선총독부 언론통제 자료총서’(전 26권) 같은 자료집을 편찬했고, 일제 강점기의 언론 상황을 다룬 저서도 여러 권 펴냈다. 하지만 나의 연구는 반일 감정을 부채질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혀내되 다가오는 미래에는 그런 불행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일본에서도 침략전쟁을 옹호했거나 잘못된 과거의 보도를 심층적으로 새롭게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인 언론이 있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단행본으로 출간한 두 권의 책이 그런 경우다. ‘신문과 전쟁’(2007.4.2~2008.3.28·연재 후 2008년 6월 단행본 출간), ‘신문과 소화(昭和)’(2009.3.30~2010.3.26·‘검증-소화 보도’ 연재 후 2010년 6월 단행본 출간)가 이에 해당하는

특별기고



정진석

·본회 명예회우
·한국 외국어대 명예교수

여성 대통령 관련

추측성 기사

틀림없는 명예훼손

국가원수 모독

국민의 公憤불러

당국 法的대응은 당연

다. ‘아사히신문의 중국침략’(문예춘추·2011)을 쓴 야마모토(山本武利·와세대대학) 교수는 아사히가 저지른 전쟁 보도의 ‘오점’을 추적했다.

한일 두 나라는 과거를 청산하고 선린관계를 도모하지 않으면 피차에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나는 늘 생각한다. 일본의 반성만 요구할 일은 아니다. 우리의 성찰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기에 나라가 망했는가, 일본에게 핍박과 수모를 당하게 된 원인이 우리에게 없는가를 반성하지는 것이다.

국익과는 관계없는 악의적인 보도

과거의 역사에 국한된 관점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해자였던 일본은 당연히 엄중한 반성과 미래 지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일본의 주요 신문이 대통령의 인격을 모독하는 결과를 초래할 기사를 실어서 한국민의 자존심을 크게 해치고 말았다. 개탄할 일이다. 일본 언론이 한국에 비판적 논조의 글이나 기사를 실을 수는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마땅히 허용되어야 할 일이다. 일본의 국익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한국의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원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는 차원이 다르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여성 대통령의 행적을 남성과 관련지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면 명예는 크게 훼손된다. 국가적인 위기에 대응할 긴박한 시간에 사적으로 어떤 사람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는 확실한 증거 없이 함부로 내보낼 수 없는 일이다. 명예훼손은 사람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된다. 공적인 척도와 사적인 척도가 다르다.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에 대한 보도와 윤리의 기준은 이름 없는 일반인과 다를 수 있다.

일반인의 남녀 간 부적절한 처신은 당사자 사이 또는 한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성직자가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법적 차원을 떠나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판의 기준이 가장 폭넓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번 산케이의 기사는 독신 여성 대통령의 개인적인 명예를 크게 해치는 악의적 의도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래서 사정당국이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공분(公憤)을 대리한 법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대로 묵과한다면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로 자리 잡게 된다. 보도의 경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산케이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원론적인 방패막이로 본질을 흐릴 일이 아니다. 보도의 진실여부는 가려야 한다. 한일 양국의 특수한 역사적 인과관계와 오늘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일본 언론은 한국관련 보도에 극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문]

올해 여름은 예년과 다른 패턴의 무더위였다. 따라서 여름휴가도 별난 성시였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나간다. 휴가는 더위를 피해 심신의 피로를 풀자는 뜻으로 바캉스라고도 한다. 이 바캉스(Vacances)는 프랑스 말이다. 이 말은 원래 학생이나 교사 법관 등에게 주어진 비교적 긴 휴가를 뜻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반인들이 일상업무를 접고 휴가를 가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바캉스는 영어로는 버케이션(Vacation)이다. 어원은 라틴어 바카티오(vacatio)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란 뜻이다. 학업이나 모든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곧 휴가의 의미다. 자유로움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휴가분해되는 것을 뜻한다. 휴가란 배터리 충전과도 같다. 그동안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면서 새로운

활력을 채운다는 데에 휴가의 뜻이 있다. 그러나 휴가는 불쾌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니간만 못하다. 우리나라 휴가 문화는 원래 휴가와는 거리가 멀어 불쾌할 때가 많다. 해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산과 바다와 강, 계곡 등 국내 유명한 피서지는 평소보다 몇 배나 시간이 더 걸려 목적지에 도착

휴가문화를 바꿔보자



윤재홍

·본회 논설위원
·전 KBS 제주총국장
·성균관대 초빙교수

하면 지쳐버려 짜증이 난다.

그 뿐인가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 쓰레기 더미, 고성방가 등 한 마디로 공중도덕 부재 현상이 계속된다. 해외로 떠나는 휴가는 어떤가? 여행사들의 해외여행 광고란 값싼 해외여행으로 피서객들을 유혹한다. 동남아나 중국은 국내 여행보다 싼 값이라고 여행사들은

앞 닦아 피서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해외여행을 다녀온 피서객들은 광고내용과는 다른 여행 때문에 불만이 터진다. 음식, 밤사이 비행기 이동은 물론 현지에서 별도의 여행 상품으로 돈을 더 받아내는 등 해외여행 역시 휴가 기분을 망치게 하는 사례가 더 많다.

그래서 특히 젊은 후배들에게 제언을 해본다. 후회 가능성이 많은 여름휴가 문화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북적대는 여름철 휴가보다는 비수기를 택한다. 비수기의 휴가는 ‘사람대접 손님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다. 자녀들의 여름 방학을 의식해 꼭 성수기에 휴가를 가야한다면 북적대는 유명한 피서지 보다는 색다른 장소를

7면으로 이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訪韓의 빛과 그림자



신우식

·본회 고문
·전 서울신문 사장

4박 5일의 감동

신문들 연일 대서특필

불교도 개신교도

광화문광장 쓰게될지

천주교의

의식적·무의식적

전략이

한국언론에 큰영향

프란치스코 교황의 4박 5일(8월14~18일) 한국 방문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동아일보 8월 18일자 1면은 “‘참 어른’ 얼마만인가...” ‘대한민국 교황신드롬’ 왜, 상처 치유해 줄 ‘따뜻한 품’에 열광, 영화 ‘명량’ 열풍도 리더십 갈망 작용, 오늘 명동미사 마치고 한국 떠나... 라는 큰 제목 작은 제목을 달았다. 동아일보가 교보문고의 7월 1일~8월 19일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이순신 관련 책 1만 2,577권, 교황 관련 책 1만1,658권으로 9백여 권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무승부인 셈이다.

신문들은 닷새 동안 연일 1면에 큰 제목을 붙였다.

▲ 경향신문 = 교황, 한국 사회에 숙제 던지다 (18일)

▲ 국민일보 = ‘한반도 화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 (15일)

▲ 동아일보 = 큰 가르침, 잊지 않을게요 (19일)

▲ 문화일보 = “한국민, 고통 속에서도 위엄지킨 민족” (19일)

▲ 서울신문 = 이런 어른 또 없습니까 (18일)

▲ 세계일보 = 화해·평화의 복음 희망을 깨우다 (15일)

▲ 조선일보 = 희망의 손길로... 가장 낮은 곳을 보듬다 (18일)

▲ 중앙일보 = ‘도움 간청하는 이들 밀쳐내지 말라’ (18일)

▲ 한겨레 = 낮은 곳 품은 교황, 한국사회 일깨우다(18일)

▲ 한국일보 =공감을 깨우다... 메마른 사회를 적시다(18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1984년에는 천주교 신자가 170만 명이었으나 지금 5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엄청난 증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시한 ‘행복해지는 열 가지 방법’ (전 동아일보 오명철 논설위원 특별기고·8월 19일자)중 첫째는 ‘인생은 다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자신의 신념과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 전 논설위원과 마찬가지로 필자는 이 대목에 공감한다. 8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지충 바오로를 비롯한 124위에 대한 시복 미사를 중계한 KBS TV의 아나운서는 ‘특정 종교’ 운운했지만 사실 과격적이었다. 8월 19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천주교 행사에 광화문 거리를 내주었으니 불교가 달라이 라마 강연을, 빌리 그레이엄 초청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겠다고 하면 또 광화문을 내줘야하는 것인가.” 그 동안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는가. 어느 전직 시장은 서울시청을 하나님에게 바친다고 했다가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올랐는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광화문광장 시복식에 운집한 군중.

8월 14일자 국민일보는 “‘교황 방한’ 뒤엔 박대통령 역할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보면 친서는 두 차례, 방한한 교황청 고위인사를 통해 두 차례, 모두 네차례 교황을 초청했다는 것. 박대통령은 공항 영접, 청와대 행사, 명동미사 참석등 세 차례나 교황을 만나는 예우를 했다. 교황방한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은 페론주의에 젖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어쩔 수 없이 기울게 된 것 같다. 8월 18일자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서 “로마에서 교황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건 교황의 과격적 스타일 덕분에 관광객이 늘고 경제가 좋아져서라는 얘기가 있다”고 적었다.

8월 18일 명동성당 미사는 누가 보아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되는 제주강정마을 주민, 밀양 송전탑 주민, 용산참사 피해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남북자 가족, 탈북 새터민,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석했다. 당초 정부쪽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따로 만나고 비무장지대 시찰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황을 둘러싼 강경파를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다.

8월 20일자 중앙일보는 김진 논설위원의 ‘중앙시평’에서 ‘북한 주민 고통에 침묵한 교황’을 지적했다. “북한 주민은 폐쇄된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자유도 인권도 없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산다...”고 적고 있다. 또 “...이스라엘만 해도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도 가해자를 추적해 법정에 세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에는 빛과 그늘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국교(國敎)가 없다. 미국 대통령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는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앞으로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달라이 라마가 한국

불교계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광화문 광장을 내어 줄 것인가. 500년 전 천주교 부패에 맞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으로 태어난 개신교가 어떤, 세계적 목사를 초청해 오면 광화문 광장을 내어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종교천국으로 가고 있다.

이번 교황방한에 천주교의 의식적, 무의식적 전략이 한국의 언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국의 신문들이 교황방한 중 연일 몇 면에 걸쳐 지면을 할애 할 수 있었겠는가. [4]

6면에서 이어집니다.

택해 보람을 느끼는 휴가를 가면 어떨까?

부모가 태어났던 시골 고향을 한번 찾아가보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만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고모, 외갓집을 찾는 것도 좋다. 도시와는 달리 농촌의 순박한 인심과 자연 환경의 생소한 경험은 물론 유

대감이 멀어지고 있는 사촌간의 우애를 두터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금상첨화의 휴가가 될 수 있다. 또 시골 종가(宗家)에서 여름학교를 여는 곳도 있다. 이곳에서 조상과 집안 내력 등을 들으면서 자긍심도 키울 수 있다.

이밖에도 명절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 성묘도 하면서 훌륭한 조상들의 가훈이나 업적 등도 배울 수 있다. 더구나 시골 주변의

명승고적 탐방도 할 수 있어 도시에서 보고 듣지도 못하는 매우 뜻 깊고 보람된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냇가에서 매미 소리를 들으며 붕어와 피라미 등 물고기와 가재도 잡을 수 있다. 또 메뚜기와 잠자리, 방아개비들이 뛰어노는 들판을 관찰하며 자연학습도 익힌다. 이밖에도 밤하늘에 수놓은 농촌 하늘의 별을 보며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신기한

모습도 볼 수 있어 도시에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농촌의 추억들을 만들 수 있다.

이제는 휴가다 하면 생각나는 ‘여름’ ‘사람 많은 놀이터’ 라는 고정 틀에서 차츰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고정관념인 ‘휴가문화’,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여름 휴가 문화로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4]

모르는 사람끼리도 일싸안은 ‘9·28’



이도형

·본회 상담역
·한국논단 발행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5천분의 1확률

성공시킨 仁川상륙

13일 뒤에야

서울에 국군 入城

해방된 그날보다

더 기쁨에 겨웠다

1950년 9월 28일 오후 2시. 나는 죽는 줄 알았다. 밖에서는 콩 볶는 기관총 소리가 아주 가까워서 귓전을 울렸고 하늘에서는 미 공군의 시커먼 그라망 전투기들이 굉음을 울리며 기관포를 내리갈기는 것이었다.

한동안 그러다가 누가 명령이라도 한 듯, 천지가 조용해졌다. 공포의 인민군이 사라지고 기다리던 국군이 왔는가? 이윽고 미군 헬리콥터가 낮게 비행하며 집 앞 마당 위 하늘을 서성거리는 듯 했다. 생전 처음 보는 비행체였다. 공중에 한 자리에 서서 떠 있다니, 참 신기한 비행기도 다 있다.

바깥이 궁금한데 나갈 수가 없다. 궁금증은 곧 풀렸다. 미군병사 두 사람이 별 경계하는 빛도 없이 집 앞마당에 들어섰다. 사촌형(時珩)이 뭐라고 영어로 반기는 듯 그들을 맞아 들었다. 형은 서울대 영문과 출신이다.

장소는 종로구 예지동 48번지 사촌 큰형님 댁이었다. 나는 밖으로 뛰어 나갔다. 남녀노소, 모두들 만세를 불렀다. 사람들은 모두 일싸안고 서로의 생존을 축하했다.

“살았어?”

“그래, 어떻게 살았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다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축하했다. 때는 오후4시. 남산 쪽으로부터 푸른 전투복을 입은 국군과 미군들이 종로4가를 거쳐 창경궁 쪽으로 행군했다. 얼마만인가? 꼭 석 달 만에 보는 ‘그리운 국군’의 모습이었다. 전부 내 친형들 같았다.

서쪽으로 화신백화점, 동으로 동대문이 훤히 보일 정도로 건물들은 다 없어지고 폐허가 돼 있었다. 그래도 좋았다. 그리고 눈물 나게 기뻐다. 해방된 그날 이상으로 기뻐다. 해방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9·28은 자그마치 13일간이나 마음 졸이며 기다렸기 때문이다.

내가 유엔군의 인천상륙을 처음 알게 된 것은 9월 15일 밤 늦게 단파방송을 들은 사촌형으로부터였다. 그날부터 가까워지는 포성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가? 국군과 유엔군을 원망도 했다. 인민군은 불과 3일 만에 서울에 오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가?

우리는 왜 그토록 애타게 국군을 기다렸는가? 우리가 국군(패잔병)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6월 28일 아침 다리를 절룩이며 총을 들고 남산 쪽으로 가던 모습이었다. 그 순간 원남동 서울대 부속병원에 당도한 인민군은 국군 부상병들 속에 섞인 900여명의 민간인 환자들까지 모조리 쏘 죽였다. 이 사실은 얼마 후에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10시쯤 인민군 탱크를 처음 보았다. 어디서 나왔는지 팔에 붉은 완장을 찬 동네 청년들이 탱크 앞에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흰 와이셔츠 차림의 한 청년을 데려다가 탱크위의 인민군 병사보고 무어라고 소개(?)했다.

탱크에서 내려온 인민군 병사는 와이셔츠 청년을 데려다가 벽에 기대게 하더니 얼굴과 가슴에 대고 권총을 쏘았다. 그날 오후, 집에 있는데 ‘드르륵 드르륵’ 파발총 연발음이 들렸다. 나가보니 아직 꿈틀거리는 시체위에 거적이 씌워져 있었다. 역시 동네 빨갱이들의 ‘신고’에 의한 짓이었다. 서울시내 사방에서, 인민군이 가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똑같은 유형의 학살사건이다. 죽은 사람들은 국군장교, 경찰관, 동네

유지, 종교인...등이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내가 알기에도 동네(을지로6가)에서 10여명, 종로4가에서 20여명, 낙원동에서 80여명이나 되었다.

중학교 5학년(지금의 고2)이던 나는 패퇴하는 국군의 모습을 보고도 지금보다는 오히려 덜 절망했다. 한강다리가 폭파되고 수원으로 쫓겨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대전에서도 오래 못 견디고 대구로... 곧 부산까지 밀릴 것 같던 대한민국을 보고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집나간 엄마가 곧 돌아오리라는 기대와도 같았다. 쫓겨가는 ‘엄마’는 곧 자유였다. 자유가 영영 안 돌아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준 아버지는 이승만이였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주리라고 믿은것은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이웃집 아저씨였다. 이승만대통령과 맥아더장군은 자유를 갈구하는 한국민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戰士(warrior)들이었다. 훈련이 부족하고 무기조차 부실했던 아들들(국군)을 이승만은 맥아더에게 맡겼다.(1950.7.14. 작전통제권 이양)

맥아더는 처음 인민군을 과소평가했다. 일본에 역전승을 거둔 맥아더는 같은 동양인이며 일본군보다도 열악할 것으로 여긴 인민군이 미군을 보기만 해도 도망갈 것으로 착각했었다. 그러나 인민군은 맥아더의 예상외로 강했다. 스미스특공대(대대)가 오산 竹嶺에서 조우한 인민군에게 거의 전멸되는 것을 본 맥아더는 생각을 달리했다.

스미스특공대가 목사발이 된 바로 그날(7. 4) 맥아더는 적의 배후에 상륙할 것을 생각했다고, 한국전쟁실록 ‘가장 추운 겨울(The Coldest Winter)’의 저자 데이비드 할버스타트는 썼다. 맥아더의 인천상륙 구상은 7월 10일 태평양지역 해병대사령관 램 웨바르드 중장이 도쿄에 들렀을 때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웨바르드는 9월 1일까지 해병대 1개 사단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밑그림을 이미 머릿속에 그린 맥아더는 위싱턴의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오마 브래들리 합참의장, 포레스트 셔먼 해군작전부장(참모총장), 콜린스 육군참모총장 등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8월 23일, 반대자들을 도쿄의 사령부로 불러 인천상륙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 모두들 의심과 의문뿐이었다. 맥아더 자신 성공률은 5천분의 1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인천의 조석干潮差는 9.6m, 그나마 滿潮 시기는 9월 15일과 10월 11일밖에 없었다. 그것도 일출 45분 후인 오전 6시 59분, 일몰 37분후인 오후 7시 19분, 두 차례 뿐. 상륙기회는 그때뿐이었다. 맥아더는 스스로가 5천분의 1의 확률밖에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을 했다. 그는 확신했다. 적은 이 불가능한 상륙지점에 전혀 방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의 확신은 들어맞았다. 그리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브래들리나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군산 등을 상륙지점으로 택했다면 실패했을 지도 모른다. 맥아더의 선택은 신의 선택이었다. 신은 맥아더의 인천상륙을 성공시켰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을 살려 주었다. 9·28의 환희는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 후 중공군의 개입, 그리고 확전을 억제하고 비극의 휴전을 하게 한 것은 아마도 성공과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오만해지고 배불러진 한국민에게 내린 신의 노여움 때문인지도 모른다. ☞

본회 고문 - 명예회장 오찬 간담회

김은구 회장은 지난 8월 4일 12시 고문 명예회장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균 부회장도 배석한 이날 간담회는 김은구 회장 취임후 지난 6개월 동안의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 등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 이날 논의된 사항 중에는 회원 늘리기 권고서신 발송, 현직 언론인 준회원제 도입, 해외 언론사 네트워크, 기금 확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사업단회의 장 - 단기 사업 추진키로

본회 사업단 (단장 한기호) 위원장 회의가 8월 4일 오후 사무실에서 열렸다. 함정훈 전 단장의 현업복귀로 개편된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임기동안 추진될 사업을 장·단기사업으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고문단 간담회에 뒤이어 열린 회의에는 한단장과 소재필 사업개발위원장, 신대근 대외사업위원장 이보길 회원사업위원장, 홍원기 명예회장, 김은구 회장, 정운종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회우 세무상담 해 드립니다

오랫동안 대한언론인회의 회계업무를 자문해 온 박상복 세무사가 8월 1일부터 회우들의 세무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양도, 상속, 증여 신고 대리, 부가세, 결산신고 대리, 과세 불복(심판)청구 대리 등 각종 세무상담을 원하는 회우는 아래 주소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상복 세무사 인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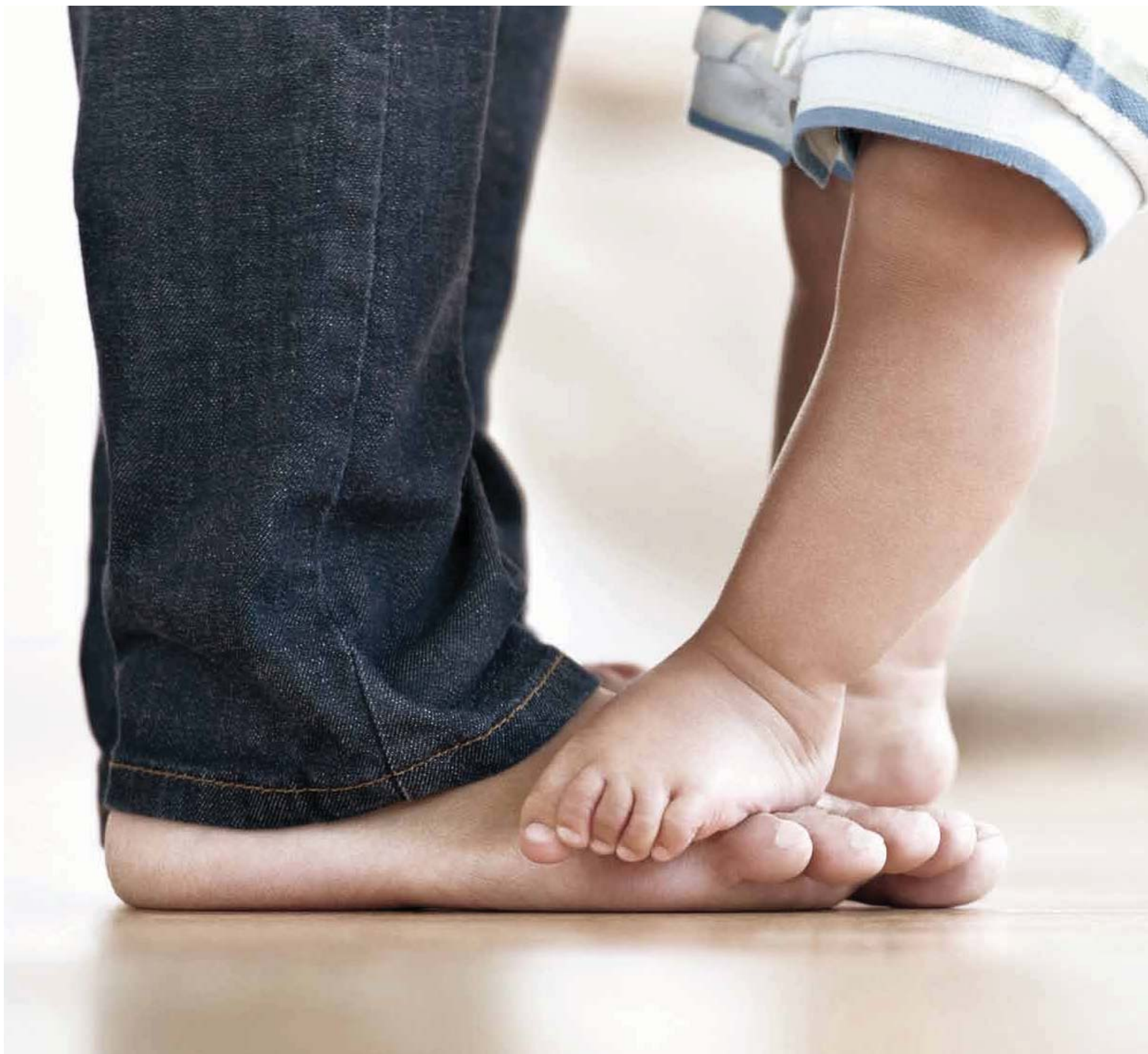
서울 중구 북창동 70-1 (범희빌딩 402호)

전화 753-6593(대) 팩스 756-6504 핸드폰 010-5412-1775

E-mail ilsong49@naver.com



박상복 세무사



잘 일어설 수 있게 잘 이겨낼 수 있게

공영 미디어랩 코바코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더 큰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코바코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박근혜 경제정책 市場이 반응 시작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정책의 청사진과 그 실행계획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박대통령과 그의 2기내각 경제총수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철학과 그 리더십만을 보고 일단 신뢰를 보낸 것이라 하겠다.

경기의 양대축인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드디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주택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94%나 증가했다. 이것은 5년만의 최고 수치로 최근 5년간 7월 평균 거래량보다 약 25%나 높은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지방에 비해 찬물만 먹어왔던 서울 주택시장이 화끈 달아 오르고 있다. 서울의 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배이상 늘었고 더구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거의 두배나 증가했다. 또한 주식시장도 최부총리가 취임한 7월16일께 코스피가 한 달 동안에 3.5% 상승했다. 지난 달 말에는 지수가 2082까지 상승, 3년간의 주가상승권을 뚫고 치고 올라갈 기미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라는 것이다.

일본계 글로벌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최근 한국증시전망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부총리 경제정책)는 아베노믹스(일본 아베총리 경제정책), 모디노믹스(인도총리 모디 경제정책)에 필적하며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면 코스피 3000돌과도 가능하다”고 했다한다. 박대통령의 경제살리기정책은 우려하던 시장의 호의적 반응을 얻기 시작했으니 시작이 반인 셈이다. 그러나 이제 부터가 중요하다. 실체가 믿음을 심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단순한 경기회복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미래경제전략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선진국형 장기저성장의 함정을 피하고 안정성장을 유지하기위해 경제체제를 수출·제조업주도에서 내수·서비스업 주도로 전환, 쌍끌이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최부총리 정책추진 인상적

이러한 전환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인정, 주장돼 온 것이지만 현실여건에 쫓겨 본격적 정책적으로 실행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것 같다. 최부총리의 말대로 미지의 항로를 항해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이에 따라 시행착오의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국회위상의 변화다. 야당이 경제 등 각종 법안에 대한 입김을 크게 강화, 사실상 거부권을 갖게 된 것이다. 정략적인 민생법안 발목잡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초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 경제를 안정적인 성장궤도로 끌어 올려 놓겠으니 국회가 여·야와 이념을 떠나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만큼은 도와 달라”며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정책처방 그 자체는 어렵지 않다. 수요를 창출하려면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내수를 늘리려면 가계의 소비지출증대가 긴요하다. 최부총리는 소비를 늘리려면 주머니사정이 좋아야하니까 가계소득증대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기업투자는 관광, 의료, 교육등 유망서비스 업종의 개방에 역점을 뒀다.

최부총리는 지난 7월 취임후 2개월사이에 ▲ 재정보강·정책금융 등 46조방출 ▲ 주택금융담보대출 인정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각각 70%, 60%로 상향조정, 단 일화 하고 명년에는 폐기하는 주택금융 확대안 ▲ 가계소득증대에 역점을 둔 2014년 세법개정안 ▲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의 투자 활성화 방안 등 경제활성화 정책의 핵심정책 들을 연달아 쏟아냈다. 서비스산업으로 약 15조의 투자와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박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의 대담하고 역동적인 정책추진은 인상적이다. 60년대 중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과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장기영 경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연상케 한다. 시간에 쫓기기는 박근혜대통령이 더 심할 것이다. 임기가 벌써 2년이 지나갔고 3년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활성화와 서비스산업발전을 3개년계획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앞으로



이재승

- 본회 회우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부동산 – 증시

침체의 늪 벗어나

내수 – 서비스업 주도

低성장 피할 수 있어

민생법안 발목잡은

야당협조가 관건

2016년4월 총선까지 선거일정이 없는 20개월이 정책집행에 전념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올해 말까지가 프라임타임

청와대는 정책동력의 프라임 타임(위급환자의 생사갈림시간)을 금년 말 까지로 본다.

최부총리가 경기부양에 우선을 두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도 큰 부동산과 증시부양책에 힘을 쏟는 것은 적절한 포석이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경제활성화 대책중 가장 빠르고 폭넓게 추진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부동산 투기가 과열 났을때 도입했던 온갖 규제들을 이제는 다시 푸는 것이다.

주택담보 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 금융족쇄를 푼데 이어 복잡 다양하기 그지없는 청약제도를 대폭 간소화한다. 수도권내 1순위 청약자격요건을 대폭 완화, 청약의 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

관련 주민의 재산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재건축도 대폭 개선한다.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의 인센티브도 높다. 불만의 대상인 각종 공적부담금도 크게 덜어줄 계획이다. 재건축 시 가구수 기준으로 60%이상, 전체 연면적 비율로 50%이상을 전용 85평방m이하로 짓도록 하는 주택건설비율도 사실상 폐지될 것 이라고 한다.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오는 9월 중순이나 10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주택시장의 기폭제가 될 것이 확실하다.

주택시장은 다른시장 보다 기복이 심하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지금부터 너무 빨리 뜨거워지지 않도록 규제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새로운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분양제를 활용, 과잉공급의 해소를 시험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키로 한 것은 경제활성화에 분전하고 있는 최경환부총리에게는 더 없이 힘을 실어준것이다. 한은이 지난 8월14일 기준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키로 한 것은 지난해 5월 2.75%에서 2.5%로 낮춘이래 15개월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경기하방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했다.

증시에서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인하폭도 0.25%에 불과하므로 별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으나 통화측면에서 최경환노믹스의 경제활성화정책을 지원, 협력체제를 이뤘다는데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정부의 재정보강 및 내수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환영했다.

민생 법안,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야

그러나 박대통령의 경제활성화정책이 승전하려면 화룡점정이 필요하다. 즉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이 요구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 단독의 입법화 길을 차단해 놓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타결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는 없다”고 민생법안들의 발을 묶어 놓았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활성화및 민생관련법안’ 1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제완화를 위한 의료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드러난 적폐 해소를 위한 정부조직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등 세월호 재발 방지와 관련된 정부· 공직자 개혁법안들도 묶여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8월14일 이들 법안의 조속 통과를 호소하면서 국회가 갈아 뭉개고 있는데 대해 질타했다. 그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때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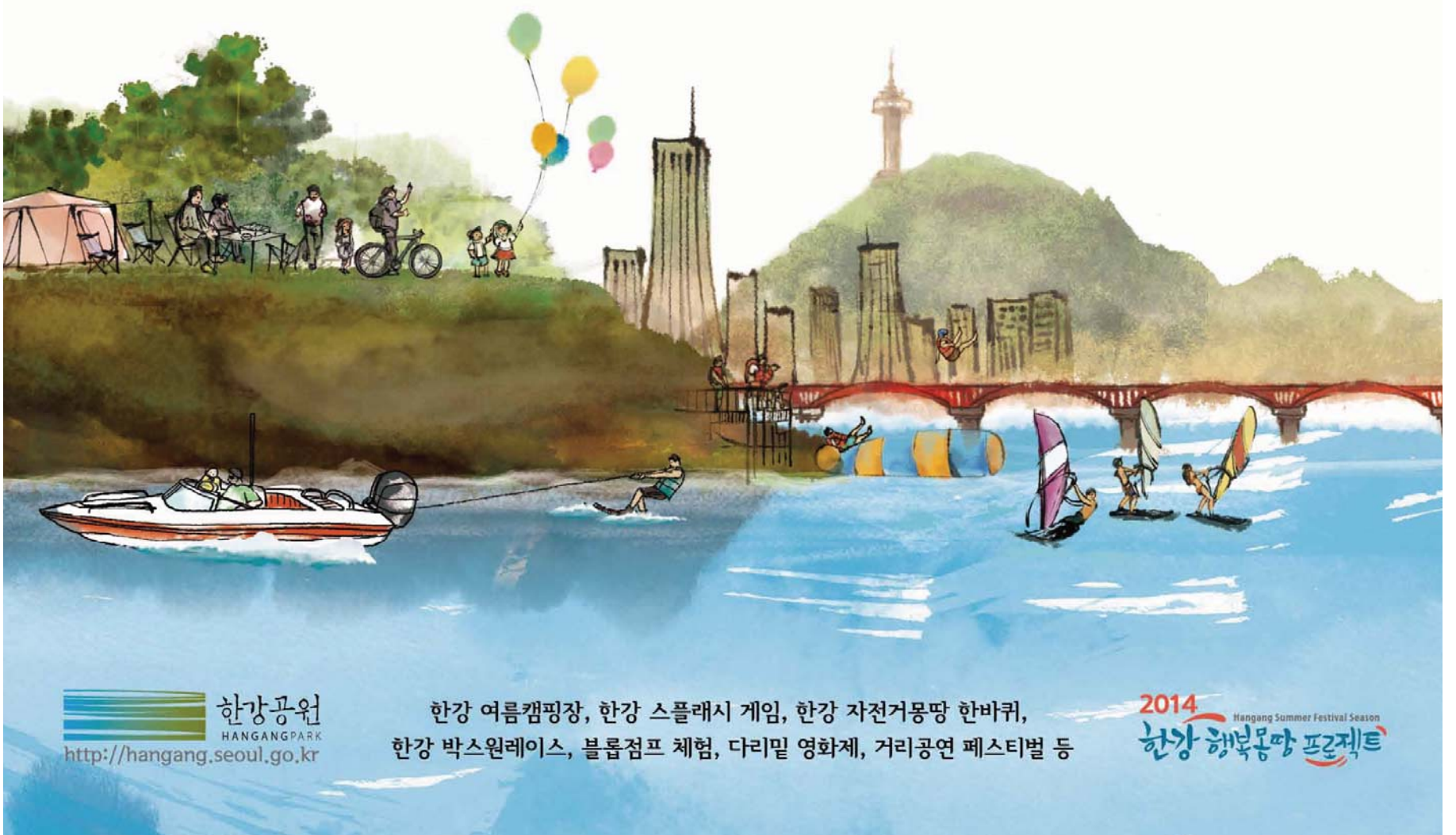
국민이 이제 세월호의 정치화에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탈정치화 했으면 한다. 경제활성화에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일반인희생자 가족대책위처럼 여·야의 2차타협안을 수용, 정국을 선순환시켜줘야 한다. 그것이 유가족, 국민, 정부, 국회 등 모든 관계자를 윈 윈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되면 박대통령의 경제활성화정책도 화려하게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희망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서울특별시

한강 몽땅

한강에서 꿈꾸고 강변에서 놀자



한강공원
HANGANGPARK
<http://hangang.seoul.go.kr>

한강 여름캠핑장, 한강 스플래시 게임, 한강 자전거몽땅 한바퀴,
한강 박스원레이스, 블롭점프 체험, 다리밟 영화제, 거리공연 페스티벌 등

2014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Hangang Summer Festival Season

인생 2막

林德圭 영문月刊 'Diplomacy' 회장 · 전 신아일보 논설위원

인터뷰 : 글·사진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대통령 - 국왕 - 수상 등 260여명 인터뷰 ...

“100년 동안 신나게 놀다간다는 생각으로 일 합니다.”

임덕규(林德圭) 외교전문 영문 월간지 ‘디플로머시’(Diplomacy) 발행인 겸 회장은 “39년 동안 한 호도 거르지 않고 발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겠다”고 묻자 달관한 듯 애들러 대답한다. 경영 상태 질문엔 “1억 벌어 1억 1000만원 쓰면 적자, 9000만원 쓰면 1000만원 흑자 아닌가요” 낙천적이다. 순발력과 재치가 돋보인다. “NO를 설득해 YES로 이끌어 내는 것이 민간 외교관”이라는 외교적 수사도 능수능란하다. 한 가지 질문에 생생한 기억력으로 사례를 들려 다중구조로 설명한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다동에 위치한 ‘디플로머시’ 사무실을 찾았다. 편집실에 들어서니 표지가 한쪽 벽면에 빼곡하다. 각국 대통령, 수상, 국왕, 석학, UN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와 저명인사가 표지 인물로 등장했다. 창간호 표지는 포드 대통령 가족사진. 커버스토리는 한·미관계와 성조기 변천사, 역대 미국 대통령의 친필 서명, 역대 주한 미국 대사 사진 등 특집으로 꾸몄다. 한쪽 벽엔 그가 세계 지도자들과 만난 사진이 걸렸다. 토니 블레어, 고르바초프, 장쩌민, 후진타오, 후쿠다, 나카소네, 아키노, 인디라 간디, 바웬사, 만델라, 라빈, 마하티르, 아키노, 토인비, 발트하임, 지난해 12월 방한한 촌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 등 460여명을 단독 인터뷰하며 찍은 사진들이다.

林德圭 회우는 호적 보다 한 살 많은 여든으로 단신에 다부진 체격이다. 빨간 넥타이처럼 열정적이고 달변이다. 인터뷰 2시간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까지 3시간 넘게 비하인드 스토리(Behind Story)를 털어놓으며 수많은 인물들을 줄줄이 꿰다.

‘무관의 전권 대사’

-국가원수 급 섭외가 만만찮을 텐데요?

“주한 외교사절들을 활용하거나 회장을 맡았던 세계국제법협회, AP 등 해외 언론계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합니다. 국가원수 측에 인터뷰 요청을 하면 실무진이나 비서진들은 “바쁘니까 시간을 내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바쁘니까 뉴스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한가하면 인터뷰하자고 안 한다”고 말하지요. 끈질기게 설득하면 기회가 열리더군요.”

그가 구축한 어드바이저(adviser) 네트워크는 500여명. 각국의 정상과 장관, 유엔을 비롯한 APEC·EU·아세안 등 국제기구 관계자,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석학, 대기업 총수 등 쟁쟁한 인사들로 ‘글로벌 마당발’이다. 디플로머시 콘텐츠 옆 페이지(6P)엔 ‘Diplomacy Family’ 명단을 깨알처럼 박아놓았다. 그들은 자문에 응하거나 기고로 제작에 참여한다.

-현지 방문 인터뷰가 많겠군요?

“방한하는 지도자들은 서울에서 만나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현지를 방문해 인터뷰 합니다. 미주나 유



林德圭 월간 'Diplomacy' 회장은 세계 지도자들과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100년 동안 신나게 놀다간다는 생각으로 일한다”고 한다.

10년동안 보좌했던 林炳稷박사가 “영어 잡지 만반기문UN사무총장 탄생 막후역할 ... 민간외교 1

럽, 중동 등 잘 알려진 나라도 많지만 피지, 지부티, 부르키나파소, 베냉 등 이름조차 낯선 나라까지 100여 개국이 넘습니다.” 초청형식으로 부부가 함께 간다고 한다. 영문학을 전공한 아내의 내조 덕을 톡톡히 본다는 것.

“정부 지원은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민간외교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뷰 방향도 경험 등 국익우선에 바탕을 두고 국왕이나 총리·대통령들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그 나라 소개에 역점을 둔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단점만 들추면 싸움이 나고 장점을 부각시키면 평화가 온다.”고 강조한다. ‘장점 따라 삼만리’가 사훈 격이다. 대인관계도 흥허물은 덮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며 친화력을 발휘한다.

2001년 12월 국제사회에서 줄곧 북한 편만 들어오던 알제리 부테플리카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은 김정일과 친한 사람이 필요하니 대통령께서 남북한 간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알제리의 경제 발전을 위

해 한국 기업들이 돕도록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외교는 윈윈이자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林 회장의 주선으로 2003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됐다. 외교관들 사이에 ‘닥터 림’으로 통하는 그가 국내에서 ‘무관의 전권 대사’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70년대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영문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드문 시기에 영문 외교전문지를 창간하게 된 계기는?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2대 외무장관과 유엔대사를 지낸 임병직(林炳稷) 박사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1960년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밟던 1963년, 집안 아저씨뻘인 임 박사가 귀국하자 10년 동안 개인적으로 보좌를 하게 됐어요. 그 무렵 철기 이범석 장군, 윤치영 박사, 이갑성 응, 안호상 박사 등을 만나 독립운동 정신과 그분들의 나라사랑을 알게 됐지요. 임 박사가 인도 대사로 있는 동안 ‘한·인도 친선협회’를 만들어 간사로



‘디플로머시’ 편집실은 자료들로 빼

활동하면서 외교를 경험했습니다. 1972년 임 박사가 뮌헨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 예술단을 이끌고 유럽 순방에 나서기 직전 세계 ‘앞으로 먹고 살 생각만 하지 말고 영어로 잡지를 만들어 외국지도자들을 설득하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당부하셨

다시 읽다

6

‘글로벌 마당발’



어요.”

그는 영문 잡지 창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 걸고 하는 독립 운동 보다 쉽지 않겠느냐는 각오와 배짱으로 시작했다. 주위에선 미친 짓이라며 극구 말렸다. 창간 준비에 2~3년 걸렸다. 유신 때라 출판 등록도 까다로웠다. 가장 큰 걸림돌은 창간 자금이다. 집과 백색전화를 저당 잡히고 사무실을 얻은 다음 1975년 8월5일 창간호를 냈다. 100사람을 만나 광고 한 건 얻어내면 다행이라고 여기며 세일즈맨으로 열심히 뛰며 39년을 달려왔다.

꽃대를 향하여

-영어실력이 특출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죠. 논산에서 배웠다고 하면 그 시절 논산에 어학

까지 다녔다. 휴전 후 서울 동성고등학교 2학년에 편입해 졸업했다. 한학자인 아버지가 열 두마지기 농사로 겨우 밥만 먹던 고3 때부터 8년 동안 가정교사를 했다.

정치인의 꿈을 키운 건 중학교 때. 대학 입학 후 각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독서클럽’을 만들었다. 軍을 무시하고는 큰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육사생도를 참여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건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15년 동안 맡아 한·미재단 장학금 등 많은 장학금을 유치하여 모교에 지원하도록 주선했다. 긴 안목의 선거 전략이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한국국민당으로 논산·공주 지역구에 출마했다. 선거구가 77곳에서 92곳으로 늘고, 1개 지역구에서 2명을 뽑았다. 민정당 정석모 의원과 함께 당선됐다. 국회에서도 마당발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외무위서 남북양자회담을 촉구했고, 남북총리회담으로 결실을 맺었다. 국제의원연맹 대표로 북한대표를 설득, 남북국회 회담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반기문 UN사무총장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데...

“반기문 UN사무총장 탄생의 막후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UN사무총장을 배출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죠. 오랫동안 지켜 본 반기문은 애국심, 탁월한 외교력과 전문성, 예의와 겸손함을 지닌 인간미가 넘치는 등 적임자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04년 초 외무장관이 되자마자 UN사무총장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어요.”

林 회장과 반 총장의 인연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 회장은 한·인도친선협회 간사를, 반 총장은 인도대사관 사무관으로 있으며 업무관계로 만나 친숙해졌다. 미국은 나토 사령부를 폴란드로 옮기기 위해 폴란드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유엔 사무총장이 아시아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이번은 아세아 차레인데 아시아 사무총장이 안 나오면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반 장관 방미 땀 라이스 국무장관과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당부했다.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폴란드 대통령으로 하여금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각 나라 정상들과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반사모(반기문 장관을 사랑하는 모임)’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펼쳤다. 모임 때마다 ‘반사모’가 인사로 통했다. 언론사 기고를 통해 ‘유엔사무총장은 꿈이 아니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관직을 사퇴하고 출마하라는 여론이 일 때는 주요 언론 주필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세 차례의 예비투표에서 1등 한 것을 지켜본 뒤 병으로 쓰러질 때까지 선거운동을 했다. -보람은?

“IMF 위기 때 제다요 멕시코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경제 위기는 가까운 시일 내 극복할 수 있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③1

腰痛에 스테로이드주사 도움 안돼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포럼 상임이사

고령화에 따라 척추협착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척추협착증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이다. 그런데 최근 학술지 NEJM이 척추협착증으로 오는腰痛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재활의학과 프리들리(Janna Friedly)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게재해 관심을 끈다.

프리들리 교수 팀은 다리 동통이 수반되는 척추협착증 환자 400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 주사 단독으로, 다른 그룹은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함께 척추막 외부에 주사하여 결과를 비교하여 보았다.

주사 직후 요통증상은 두 그룹 모두에서 완화되었으나 3주후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그룹에서만 다리 통증과 기능이 약간 좋아졌으며 6주 후에는 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그룹에서 초기 67%가 대단히 또는 보통으로 만족스럽다고 했고 국소마취제만을 주사한 그룹에서는 54%가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만족도는 첫 3주 동안의 것으로 예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 기분을 좋게 해주고 피로를 줄여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술 이후 골밀도 감소, 골절증가, 면역수준감퇴 등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2013년 학술지 ‘척추’(Spine)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나이드는 사람들의 요통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면 주사를 하지 않은 그룹보다 하부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더 심화된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후 4년이 경과된 후에까지 동통이 약간 완화된 경우가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치료한 결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낮았다고 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수술을 받게 되는 데, 이럴 경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수술효과가 더 낮았다고 했다.

프리들리 교수는 그 동안 척추협착증 치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한 치료 방법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것이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스테로이드 주사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므로 다른 치료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했다. [4]

들라”당부 人者 명성



원이 있었느냐고 되묻습니다. 김대건 신부(세례명 안드레아)의 이름을 딴 논산 대건중고등학교는 1945년 대건중등영어강습소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논산군 부적면 탑정리 집에서 학교까지 6km를 오가며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운 게 밑거름이 됐습니다.”

林 회장은 목표 지향적이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부터는 고학을 해서라도 서울에

서 다녀야 한다”고 꽃대를 세웠다. 시골의 고봉밥 대신 서울의 공기밥 먹는 연습으로 식사량을 줄이기 시작해 소식 주의자가 됐다. 목표대로 서울 철도중학교에 입학했으나 적성에 안 맞아 인천중학교로 전학했다. 6·25전쟁 중에 대건중학교로 옮겨 대건고등학교 1학년

는 낙관적 답변을 이끌어 냈어요. AP통신은 ‘디플로머시’ 기사를 인용 보도하여 국제신인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게 기억에 남습니다.”

“70년대는 한국을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90년대부터는 외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느냐 조언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일이 많았다’며 “한국의 위상을 피부로 느낀 것도 보람”이라고 한다.

짧은 1막, 긴 2막

林 회우의 인생 1막은 짧고 2막은 길다. 1966년부터 4년 동안 동국대와 서강대에서 국제법과 행정법을 강의할 때 장기봉 신아일보 사장이 만나지는 연락을 해왔다. “논설위원을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언론계 경험이 없다”고 사양하자 “국제법을 전공했으니 국제 동향과 해외언론 관계를 다뤄주면 된다”기에 전공분야라 수락했다. 1968년이다. 그 뒤 동화통신 논설위원을 거쳐 출판국장대행으로 ‘동화그라프’ 화보를 제작한 뒤 출판인으로 인생 2막을 열었다. 언론현장을 떠난 뒤 최석채, 오

소백, 이해복 등 언론계 원로들을 만나 언론인 동호회 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별히 하시는 운동은?

“국회의원 시절엔 골프를 쳤으나 요즘엔 뇌 운동만 합니다.”

жат은 해외 출장으로 춘하추동을 모르고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하다 보니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 중동은 토요일이 월요일, 일요일은 화요일이니 주말에 섭외를 한다. 반기문 총장과의 통화도 반 총장이 퇴근한 저녁이면 한국은 낮이니 자연스럽다고 한다.

충청권 명사들의 모임인 ‘百笑會(백제의 미소) 총무를 맡아 특유의 친화력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주선한다. 잡지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틈틈이 대학과 관공서를 돌며 해외 정상들 취재 일화를 중심으로 리더십 특강을 한다. “기회가 되면 언론인회 회우들에게도 파워포인트로 보고회를 갖고 싶다”고 밝힌다. 부인 李靜順 여사(81)와의 사이에 3남 1녀. [4]

屍身등 끔찍한 화면 여과없이 放映

케이블과 위성 TV 시대의 도래 이후 우리는 안방에서 100개가 넘는 갖가지 채널들을 골라볼 수 있게 되었다. 百花齊放. 온갖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다. 심지어는 개 전문 채널까지 등장했으니 다양성의 시대를 한껏 누리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 볼까 겁나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TV 채널 돌리기가 무서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여과되지 않은 화면들이 무차별로 시청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이렇게 자극해도 보지 않겠느냐고 위협하는 듯하다. 그런데 개중에는 너무나 끔찍해서 이런 화면과 방송 내용들을 아이들이 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는 경우가 비밀비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유병언 부검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던 날,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기자회견장에 게시되어 있는 두 장의 유병언 시신 대형 사진이 그대로 화면에 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TV 화면에서는 시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꼭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국과수의 기자회견 때 유병언의 시신 사진을 게시한 것은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다. 워낙 의혹이 많은 사건이었으니만치 시신의 모습을 공개한 것이다.

그 시신 사진까지 시청자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발표 현장에 있는 사진이라고 그대로 비추고 있는 편집자의 무신경함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다.

내외신 보도를 보며 이제 TV에서 시신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이런 보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왜 하는 것인가?

윤 일병 사망 사건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다. 병역이 의무인 국민개병제도의 우리나라에서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한 사건이었다.

군대내 폭행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는 지금부터 45년 전인 1969년 육군에 입대했다. 그때는 아들이 입소하는 훈



방 송 시 평

유자호

- 본보 편집위원
- 전 KBS 파리특파원
-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잔혹게임 경쟁 인식

그런데 문제는 TV들이 윤 일병에게 가해진 폭행과 학대 수법을 미주알 고주알 그대로 다 까발려 보도하는 것이다. 이제는 개인 간에 귓속말로 할 수 있던 내용을 TV 화면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듣는 시대가 되었다. 도대체 그 가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이

윤일병 가혹행위 미주알 고주알 보도 여중생 피살 사건 범행수법까지 재연

련소까지 따라오는 부모도 없었지만 입소 장정들에게 일일이 경어를 써가며 존중하는 듯하던 훈련소 조교가 일단 우리가 훈련소 경내로 들어서자마자 욕설을 퍼부으며 땅에 처박고 군화발로 마구 차고 지근지근 짓밟던 것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도 일석점초 이후에는 사병들만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졌었고 집단 기합이나 폭행 같은 것이 자행되곤 했었는데, 이번 윤 일병 사건을 보며 그때보다 더 교묘하고 잔혹한 짓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임병이란 자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요즘은 대개 하나 뿐인 남의 집 아들을 그렇게 짐승 대하듯 무참하게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인가?

유가 무엇인가? 그 보도를 보는 윤 일병 가족들의 심경이 어떨 것이며, 그때마다 고문과도 같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걸 편집자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또 아직 군에 가지 않은 미성년 세대들과 부모들은 이 극히 비정상적인 일부의 사건을 두고 군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 구체적인 보도들이 한국을 보는 외국의 눈에는 또 어떻게 비칠 것인가?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8월 15일, SBS의 <궁금한 이야기 Y>는 김해 여중생 피살 사건을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며 역시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범행 수법 자체가 워낙 잔인하고 혐기적이었지만 재연이란 명목으로 폭행 장면과 심지어 시

체 훼손 장면까지 무차별로 전파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시체를 불로 그슬리고 시멘트를 부어 매장하는 끔찍한 재연 장면이 그대로 방영되었다. 범행 수법도 세세하고 친절하게 소개되고 있었다. 그것도 지상파에서...

케이블 TV 등장 이후, 이제는 지상파와 케이블이 경쟁하듯 잔혹 게임을 벌이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까지 한다. 왜 이런 채널들을 굳이 만들게 했던 것일까?

수술장면 내장 자르는 모습까지

EBS의 <명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건강이 장수 시대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된 요즘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 종합병원에 가면 <명의>에 출연한 자기네 병원의 의사들 사진을 자랑스럽게 게시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의료계에 이 프로그램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 누려야 할 당연한 명예라고 하겠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명의>의 수술 장면에서 내장이 드러나는 장면의 모자이크 처리가 사라져버렸다. 시청자들은 인체 내부 장기들의 생생한 모습과 내장을 가위와 칼로 자르고 들어내는 모습들을 실제 상황 그대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들에게는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인체의 병든 내장들과 그것을 자르고 들어내는 모습까지 볼 이유는 없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 TV 종사자들은 겸허하게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나라가 있어야 방송도 있다. 넘쳐나는 채널들이 국민 정서에 오히려 해악을 끼친다면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이란 말인가? 

뉴스 무단개재 국회의원 무혐의 비판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는 최근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뉴스 저작물의 무단 개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6일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신문기사를 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에 대해 “의원의 행위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공정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의원 홈페이지가 언론사 홈페이지 등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언론 5단체 재난보도준칙 제정 공청회

한국신문협회(회장 송필호)와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송희영),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이명관)등 5개 언론단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지난 8월 2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난보도 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언론가 소식

신문협, ABC 운영 재검토 촉구

신문협회가 발행하는 지난 7월 29일자 신문협회보 제502호는 “ABC협회 회원사들은 ‘협회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해야한다는 여론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문 광고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ABC제도가 회원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방송협회장에 안광한 MBC사장

지난 7월 31일 열린 한국방송협회 정기총회 및 이사회는 안광한 MBC사장을 제20대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안광한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16년까지 2년이다. 조대현 KBS사장, 이응모 SBS사장, 신용섭 EBS사장, 이재천 CBS사장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기자협 창립50주년 기념식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8월 11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수(본회 자문역), 박기병(본회 상담역) 송호빈(본회 상담역) 이형균(본회 부회장) 박 실(전 국회의원) 정성진(본회 회우) 이성춘(본회 논설위원) 안병준(본회 회우) 전 기자협회 회장 등 언론계 인사를 비롯 정의화 국회의원, 정홍원 국무총리등 정관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협회는 또한 이날을 계기로 ‘한국기자협회 50년사’를 발행하고 기자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고 이강현 고문에게 공로패를,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등 6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무성 대표 초청 토론회

관훈클럽(총무 이용식)은 8월 19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인사검증보도의 현주소와 개선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준용 교수(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의 ‘언론의 고위 공직자 보도의 원칙과 적용’이란 주제발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특별발표 ‘내가 경험한 청문회의 언론보도’, 남시욱(본회 상담역), 홍기섭 설진아 김상수씨 등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관훈클럽은 또한 8월 2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초청, 관훈토론회를 가졌다.

MBC 상암동 신사옥 시대 열려

MBC는 8월 4일 새벽 1시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송출을 끝으로 30여년의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상암동 신사옥 시대를 열었다.

9월 1일 상암동시대 개막 선포식을 가진 MBC가 이전한 곳은 서울 상암DMC내 C1, C2 방송용 블록(총 1만 348평)으로 기존 여의도 MBC 방송센터 넓이의 두 배 크기다. 신사옥은 최첨단 디지털 건물로 MBC 본사와 10개 자회사를 비롯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후지TV, CCTV 등 외국 방송사의 한국 지사가 입주한다.

이석기 항소심 판결에 엇갈린 해석

통진당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서울 고법이 그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여 사실심을 끝내고 대법 확정판결만 남았다. 판결에 좌·우지의 논조가 엇갈렸다. 한겨레는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무죄’라며 옹호한 반면 조선, 중앙은 ‘내란음모에 입증 부족일 뿐 결코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 동아는 ‘내란음모든 선동이든 이석기는 국가전복 획책했다’면서 이석기의원직 제명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재판不信 논리 펼쳐

한겨레는 8월12일 사설에서 “법원은 ‘체제전복 선동 등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용인할지 말지를 가르는 기준부터 자의적일 수 있다”며 정치 집단을 선동죄로 처벌하려면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필요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끌어대 재판을 불신하는 논리를 펼쳤다. 고법은 분명히 ‘급박한 해악’이라고 판시했다.

동아는 12일 “법원이 이 의원 세력의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과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진당 측은 벌써부터 ‘내란음모가 무죄면 선동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일 뿐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조선도 ‘이석기 2심, 內亂음모 면죄부 준 것 아니다’에서 “국민 상식으로 이 의원 등의 행태는 명백한 내란음모다. 이 의원과 같은 세력은 법률적으로는 증거로만 유·무죄를 다룰 수 있다는 자유민주 제도의 근간을 이용해 자유민주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도 “재판부는 ‘이 사건 회합 참석자들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범죄를 결의해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썼다.

한겨레는 이석기 등이 주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정치적 소수파의 정부 비판이나 과격한 선동이 처벌 대상으로 굳어진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문을 던졌다. 반면 동아는 “자유민주 체제를 폭력적으로 뒤엎을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북한의 대남혁명

론에 동조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각 종단 대표들이 선처 탄원서를 낸데 대해 경향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념 논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며 비호했다.

그러나 동아는 “체제과과 세력에 대한 안이한 자세가 이석기 같은 사람을 국회까지 진출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통진당 해산’ 현재능력 비판 안해

이석기 2심 판결이 현재의 통진당 해산청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겨레는 “내란선동 혐의는 명백하게 이 의원 등의 개인 문제이지, 정당 조직 전체의

문제일 순 없다.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친다고 법률적으로 인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과 현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통진당 전체로의 확산을 차단했다. 조선도 “RO의 실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현재에서 통진당 해산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썼다.

반면 동아는 ‘이석기 구하려다 제 발 등 찍은 통진당’ 기사에서 재판부는 “내란선동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현직 국회의원 주도의 정당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벗기 위해 5·12 회합이 정당 모임이라는 점을 쉽게 인정한 것이 이제는 ‘당과는 무관한 일탈행위’로 빠져나갈 수 없게 ‘자승자박’한 꼴이 됐다. 현재 심판에서 관련 판결문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문들은 심리시한 180일을 넘긴 현재의 통진당 해산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종북’ 표현언론 유죄 판결 맹비판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한상대 검찰총장은 2011년 8월 취임사에서 ‘종북좌익세력과 전쟁’을 선포하고 ‘종북이란 북한을 추종, 찬양하며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고 폭넓게 해석했다.

청구 심판을 비판하지 않았다. 현재가 법원 판결을 눈치 본다면 왜 현재가 독립기구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 모 정치평론가와 이를 인용한 언론사에 서울 고법 고의영 판사가 배상하라고 선고하자 동아는 12일 ‘종북’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지 법원이 내놔보라’고 반박했다.

‘내란음모 무죄’ 판결 옹호와 비판 맞서 ‘從北’표현 유죄엔 “어느나라 법원이냐”

동아는 “법원은 ‘종북’을 북한 노동당을 추종하는 것이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구체적 증거 없이 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종북은 사전에 있던 말이 아니므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법을 따라야 한다. 종북은 북한 정권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을 흔히 지칭하는 말로 자리 잡았다. 이 대표는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북한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정치인의 정체성에 ‘종북’이란 표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다”라고 공격했다. 동아는 “통진당 전체가 종북으로 규정돼 재판 중인데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고 했다고 불법이라는 것은 법 감정에 어긋난다.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은 11일 1면 톱에서 “정치인 검

증을 하지 말라는 애기와 같다. 종북 용어는 민노당이 갈라질 때 심상정, 노회찬 등이 ‘저 사람들은 종북’이라고 해서 나온 말인데, 판사가 그들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냐”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고의영 판사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배상을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종북에게 관대한 재판부는 어느 나라 법원이냐, 통진당을 종북으로 보고 해산청구를 낸 정부도 유죄냐”고 비난했다. 변씨는 “통진당에게 때돈을 벌게 해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우과 언론에 가혹한 책임을 물으며 정당당에겐 관대했다.

종북 용어는 정치학 박사인 구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사용했다. 그는 2011년 7월 민주당 최고위에서 “원칙 없는 대북 포용정책은 ‘종북 진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종북 진보’에 색깔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은 이와 다르다”며 종북관을 펼쳤다. 이에 정동영 최고는 ‘종북 진보’가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했다. “증거가 있어야 종북이라면 그게 간첩이지 종북이냐”는 항간의 의문을 풀어주는 신문들은 없었다. 종북 소리 듣기 싫다면 판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의지를 보이면 된다. 애국가, 태극기를 거부한 자들이 종북이 아니라면 ‘빨X이’로 부르라는 건가,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판결에 신문들의 지적이 약했다.

문재인 동조단식 거센 비판론

경제침체로 민생이 타격을 받는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난항에 대해 문화는 20일 “세월호 유가족위의 ‘특별법 비토’ 도를 넘고 있다”, 조선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내와 절제도 필요하다’는 사설을 썼다.

‘세월호는 또 하나의 광주’라며 논란을 빚은 문재인 의원의 유족 동조 단식에 조선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재인 의원의 행동’, ‘야 세월호 사태를 반정부 투쟁으로 끌고 갈 작정인가’, 중앙은 ‘전직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처신’이란 사설을 썼다. 갈등 조정자가 국회라는 터전을 잃으면서 갈등을 부추겨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4]

90대 東友들 한자리에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 김태선 회장은 지난 8월 1일 오전 11시 동우회 사무실에서 90세 이상의 원로동우들을 초청, 100세시대를 화두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월 20일자로 발행된 동우회보 38호는 이 같은 소식을 1면 머리에 싣고 머지않아 ‘120세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타블로이드 18면 컬러판으로 나온 이번호는 특히 이명동 본회 원로 회우의 사진 작품전 소식, 김광희 본회 자문역의 ‘세정낙수’, 안평선 회우의 ‘그때 그 시절 동아방송’ 남은 이야

사우회 소식

기’, 고 이해복 고문 1주기 추도식 소식과 이흥우(본회 편집위원)회우를 비롯한 동아일보 사우들의 활약상(8-9면) 등이 실렸다.

회우 일자리 사업 큰 성과

KBS

지난 8월 1일자로 발행된 KBS사우회보에 따르면 KBS시니어 직능 클럽이 출범 이후 1년 동안 KBS는 물론 외부 기관 단체 등에 회우 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돼있다.

타블로이드 8면 컬러판으로 발행된 이번 회보엔 안평선 회우의 ‘삶의 단상’ (2면), 정용석 본회 회우의 ‘특파원 17년’, 7면에 소개된 이철영 본회 편집위원의 ‘이 한장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韓友會報’ 13호 발행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우회(회장 제재형·본회 고문)는 지

난 7월 25일자로 ‘한우회보’ 13호를 발행했다. ‘나무는 뿌리로 산다’를 머리기사로 해 나온 이번 회보는 컬러판 타블로이드 8면에 다채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사진과 함께 실린 한국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이 한국일보 사우회 주최로 거행됐다는 소식과 2면에 실린 김후란 본회 자문역의 축시, 맹태균 본회 홍보출판위원장의 글, ‘한국일보를 빛낸 언론인 홍승면’ 관련 기사가 돋보인다.

영화 '명량' 이순신 '忠'의 메시지

영화 '명량'이 한국 영화사의 한 획을 열고 있다. 극장 흥행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우고 천 6백만 명의 관객동원 신기록의 금자탑을 세운 이 영화는 한국사회에 르네상스처럼 이순신 신드롬을 부활시키고 있다. '명량'은 형식은 시대극을 빌렸지만 내용의 메시지는 오늘의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정치 부재 속에 공공의 선과 법질서가 무너지고 존경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오늘의 한국에 이순신이란 인물을 통해 진정한 나라 사랑을 자기희생이요, '忠'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영화는 이순신 수군통제사의 침묵의 리더십으로부터 시작된다. 모함으로 투옥되었다가 조선 수군이 궤멸되자 수군통제사로 복귀한 이순신에게 남겨진 것은 12척의 배가 전부였다. 설상가상으로 수군은 육군에 편입하라는 왕의 교지가 떨어졌다. 수군의 사기는 바닥이고, 참모들은 바다를 버리고 육지로 가야한다고 이순신을 압박했다. 이순신은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침묵의 리더십으로 참모들의 압박을 물리친다. 그날 밤 이순신은 '바다가 무너지면 왜군은 하루 반 만에 서해



김 화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살 것이다'라고 포효하고 출진한다.

이후 전개되는 60분의 해상전투 신은 전편을 통해 압도적인 신으로 그래픽의 한계를 넘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긴장과 흥분이 교차되고, 이순신이 왜 위대한 해군 제독인가를 여지없이 입증한다. 러닝타임 148분 중 60분이 해전 신이다. 이순신은 일자진을 펼친 후

11척의 배는 뒤로 하고 자신이 탄 기함만을 이끌고 해적왕이 이끄는 왜군



영화 '명량'의 한장면.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고 자랑스런 역사도 역사입니다. 우리는 현재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는가? 자랑스런 역사를 쓰고 있는가? 그 해답이 영화 '명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 오랜 전쟁으로 인해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 신식 무기 조종을 들고 무서운 속도로 침공하는 왜군에 의해 국가가 존망

의 위기에 처했을때 누명을 쓰고 파면 당했던 이순신 장군(최민식)이 삼



최택만

·본회 논설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부끄러웠습니다.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종북 등의 세력에 대해서 글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한 스스로를 되돌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역사 뒤에는 위대한 국민이 있고, 듣고 싶지 않은 역사의 뒤에는 일본 사절단으로 갔다와 "일본의 침략 위협이 없다"고 보고한 썩어

빠진 조정관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작금의 사태와 비교하면서 극장 문을 나온 뒤 미력하나마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력히 솟구쳤습니다. 내친 김에 한 봉사단체(SA)에 가입했습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자처해온 내가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깊이 반성하면서... 정부를 비판만 하고 살아온 과거가 부끄럽다 못해서 오늘 한줄의 영화 관람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나라 적에게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문제다" 이순신 장군이 아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는 12척 밖에 없는 우리 수군의 현실적 두려움을 극복시키는데 성공했고 일본군은 3백 여척의 전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순신을 두

60분의 해상전투신 압권

를 거쳐 한양을 점령할 것'이라면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니 죽기로 싸우겠다'는 수군 당위성과 '신이 바다에 있으면 왜군도 바다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글을 적은 상소문을 한 양으로 보낸다.

이순신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한다. 히데요시는 이순신을 잡기위해 해적왕 구루지마를 응원군으로 급파하고,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상대로 싸우면 필패한다고 믿는 전라 좌수사는 건조된 구선에 불을 지른다. 구선을 잃은 조선 수군은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순신은 병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것은 자신이 술선수범 하면서 죽는 길밖에 없다고 스스로 다짐한다.

이순신은 정면 돌파를 택한다. 도망병을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검으로 목을 치면서 '군율은 엄숙하다'고 일갈한다. 이순신은 진도에서 해남으로 진영을 옮기고 조류변화가 심한 울돌목을 살피면서 12척의 배로 330척 왜선과 결전을 준비한다. 마침내 이순신은 진영을 불태우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배를 울돌목으로 유인하기 위해 종횡무진 초인적인 힘으로 싸운다. 쇠덩이 포에서 초랑포로 바뀌며 왜선에 포격을 퍼붓는 다음 백병전을 전개한다. 백병전에서 조선 수군은 도끼와 돌로, 승군은 긴 칼로 왜군을 물리친다. 마지막 전략은 11척 배를 함류시켜 적선에 정면으로 부딪치는 충파로 왜선을 침몰시켰다.

이 영화에서 이순신으로 나온 배우 최민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엄숙하고 긴장된 얼굴이다. 딱 한 번 웃는 신이 있다. 울돌목에서 대첩을 거두고 귀선하는 배에서 어린병사가 준 토란을 먹으면서 '먹으니까 좋구나' 말하며 살짝 웃는 신이다.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대한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영화 '명량'이 단순히 이순신의 대승만을 그렸다면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을 것이다. 영화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백성을 위한 위정자가 왜 없는지를 한국사회에 묻고 있는 것이다. [4]

“나라위해 뭘 할지” 깨우쳐

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건 전의를 상실한 병사와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 그리고 12척의 배뿐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 이순신 장군을 배반한 우리 수군에 의해 불타고 잔혹한 성격과 뛰어난 지략을 지닌 구루지마(류승룡)가 왜군 수장으로 나서자 조선은 더욱 술렁입니다.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가 속속 집결하고 압도적인 수의 열세에 모두가 패배를 직감하는 순간,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 바다를 향해 나서는 데...

12척의 조선 vs 330척의 왜군의 전쟁을 격렬하고 실감있게 그린 이 영화는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필자가 고교시절 시네마스코프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를 봤던 때 보다 더 스펙타클했습니다. 늙은이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고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동, 통쾌, 자긍심 등 온갖 상념이 교차되는 2시간이 지났을 때 필자는 나의 생활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세가

려워하는 한 장수가 그의 수병의 두려움을 극복시키지 못해 비참한 패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울돌목의 조류를 이용한 그의 지략이 승전으로 이끈 주요한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

최단시간에 우리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기록을 세우고 있는 '명량'의 현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갈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한가닥 빛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또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하면 살 것이다'라는 장군의 부하들에게 호령한 말은 명언이고 교훈입니다. [4]





2014 이stanbul 경주에 옵니다

İSTANBUL in GYEONGJU

이stanbul in 경주 2014

2014.09.12[금]- 09.22[월]

새로운 여정의 시작
Starting a New Journey

● 장소

주행사장 | 경주

-야외행사장 | 황성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실내행사장 | 경주예술의전당(대공연장/대전시실)

이stanbul공연단 순회공연 | 서울/부산

● 주최

이stanbul시

● 후원

경상북도·경주시



치매를 예방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듀얼태스크(dualtask)’라는게 정설(定說)로 되어있다.

치매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연구기관인 미국의 국립위생연구소(NIH)에 의하면 치매예방의 트레이닝으로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유산소운동이 유일한 것이라는데 ‘듀얼태스크’는 또 무엇인가? 듀얼(dual)은 이중(二重)의 뜻이고 태스크(task)는 과업(課業)의 뜻이라서 ‘이중의 과업’이란 뜻이 되므로 ‘듀얼태스크’란 ‘더블액션’을 말한다. 곧 유산소운동 플러스 알파의 뜻이다. 알파는 뺄셈을 말하므로 유산소운동을 하면서 뺄셈을 동시에 하면 뇌에 두 가지 액션이 동시에 작용하여 뇌를 활성화 시킨다는 뜻인데 ‘듀얼태스크’는 『치매가 되지 않는 장수뇌 만들기』라는 일본의 최신간 치매예방책자속에 등장하는 합성어(合成語)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치매예방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유산소운동에 뺄셈을 보태어 그 효과를 가속하는 것이 ‘듀얼태스크’라는 것이다.

“통상 사람은 동시에 몇가지 ‘태스크(과업)’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요리나 청소같은 집안일을 하면서 동시진행으로 몇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되면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스크’가 점점 줄어들어 최종적으로는 밥을 먹는다든가 가장 근원적인 행위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MCI(Mild Cognitive Impairment·輕度認知障害), 곧 초기치매의 단계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태스크’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치매예방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처음으로 ‘듀얼태스크’의 치매예방 효과를 주창(主唱)한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병원장은 ‘듀얼태스크’로 유산소운동과 함께 두뇌를 자극하는 일의 효과를 『유산소운동과 동시에 두뇌를 사용, 자극함으로써 뇌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운동야(運動野)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듀얼태스크’는 일종의 ‘뇌자극요법’이다. 유산소 운동을 포함하는 복수의 작업을 동시에 행함으로써 뇌속의 보다 넓은 범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설명이 길어졌지만 ‘듀얼태스크’의 메뉴는 더러 헛갈리기도 하지만 간단하다.

스텝운동을 하면서 100에서 9를 계속 뺄어나가면 1이 남고, 100에서 7을 계속 뺄어나가면 2가 남고, 100에서 9를 빼고 다음 7을 빼는데 차례로 되풀이 뺄어나가면 4가 남는다.

스텝운동을 하면서 100에서 1을 차례로 빼아 1이 될 때 까지 셈한다.

이건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듀얼태스크’를 알기 10년전부터 거리를 걷다가 달려가는 차의 번호판을 보고 순식간에 ‘짓고뺄’을 하는데 아주 빠르고 정확하다. 나는 젊었을 때 노름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화투짜를 쥐어본 적이 없는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11>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치매차단 - 오는 것이 보이면 막을 수 있다 (中)

데 이상하다. 좌우 지간 뇌 자극은 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숫자를 어느쪽에 붙이는가에 따라 뺄이 달라지니 간단하지도 않다.

『‘듀얼태스크’는 2개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자면 두가지 작업을 분할하여 각기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의와 처리는 전두전야(前頭前野)가 담당하는 수행기능이 갖는 중요한 역할의 하나다. 두가지 작업을 동시에 행함으로써 ‘뇌의 사령탑’으로 불리며 뇌의 수행기능을 담당하는 ‘전두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단을 하게 한 것이다. 치매버스를 타면 도중에서 내리거나 되돌아 올 수 없는 원 웨이 티켓(one way ticket)을 치매버스를 타기 전에 찢어버릴 수 있다는 희망의 길을 실험은 명확하게 보여 준 것이다.

더욱이 유산소운동에 의해서 뇌 속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인 해마(海馬)의 신경세포가 신생(新生)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마는 기억의 입구이지 기억의 창고는 아니다. 기억의 창고는 대뇌피질(大

유산소운동과 ‘듀얼태스크’의 효과

전야’를 자극하여 활성화 할 수가 있다.』 위의 말은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코멘트다.

일본의 장수의료연구센터는 2012년 6월부터 아이치켄다이췌(愛知縣大府) 시내에 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5,104명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골라서 3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비교실험을 했다.

실험을 한 장수의료센터에 의하면 308명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일주일에 워킹이나 계단오르내리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교실에 참가한 그룹과 같은 기간 운동교실에 참가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10개월 동안의 시험 끝에 인지기능의 차이가 나는지 어쩐지를 조사한 결과 『양 그룹의 인지기능을 측정했더니 운동을 계속한 그룹의 인지기능은 향상되었으며 치매예방에 중요한 항목인 기억력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뇌의 위축도 스톱되어 있었다. 한편 운동을 하지않은 그룹은 인지기능이 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뇌의 위축이 진행된 사람이 상당 수 나타났다.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치매는 진행된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유산소운동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의 위축도 멎게 했으므로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 ‘MCI(가벼운 치매) 단계라면 예방은 가능하다는 관

皮質)이다. (주) 기억장해나 견당식(見當識·사물을 가늠하는 기능) 장애를 초기증상으로 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있어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해마는 통상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위축하는 것이지만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발증(發症)하면 해마의 위축이 한창 진행되는 것으로 사후 부검에 의하여 밝혀진바 있다. 그러므로 치매진단에서 CT검사나 MRI검사와 같은 뇌검사를 할 때 해마의 이상이나 해마의 위축은 반드시 체크되는 항목이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예방하는 열쇠가 해마에 있는 것이라면 해마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액성(液性) 단백질인 ‘뇌유래영양인자(腦由来營養因子·BDNF)’라고 한다.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4,500명의 BDNF를 검사한 결과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피속의 BDNF가 점점 줄어드는데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일수록 BDNF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BDNF의 양과 해마를 중심으로 하는 뇌위축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相關)이 있다고 한다. 곧 뇌의 위축도가 클수록 BDNF의 양도 줄어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BDNF는 해마의 생명력을 부여하는 에너지원(源)임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뇌속의 BDNF를 생겨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유산소운동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국의 피츠버그대학에서 건강한 55~80세까지의 남녀 120명을 유산소운동과 스트레칭운동 그룹으로 나누어 1년간의 비교조사를 한 결과 스트레칭운동을 한 쪽의 사람의 해마용적이 14% 줄어든 반면 유산소운동을 한 쪽의 사람들은 해마의 용적이 왼쪽은 2.22%, 오른쪽은 1.97%, 평균으로 2% 커졌다는 것이다.

유산소운동은 해마의 위축을 방지할 뿐 아니라 해마를 비대화(肥大化)하는 효과도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피츠버그대학의 카크 엘릭슨 교수는 이렇게 코멘트했다. “나이를 더 함에 따라 해마의 위축은 필연적인 것이지만 적당한 운동을 1년동안 하는것 만으로도 해마의 사이즈를 크게 늘릴 수 있다. 뇌는 이 단계에서도 변화할 수 있다. 『유산소운동→BDNF의 출현→해마의 유지·비대→인지기능의 유지』라는 희망적인 사이클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유산소운동에는 BDNF를 증가시키는 일 말고도 많은 메리트가 있다. 예를 들자면,

▲아미로이드 - 베타(β) 단백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타난다. 『치매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아미로이드-베타 단백을 분해하는 ‘네브리라이신’이라는 효소가 유산소운동에 의해 나타난다.』

▲뇌의 피 흐름이 증가한다. 『30분 정도의 유산소운동으로 뇌의 피 흐름이 안정시(安靜時)에 비해 20~30% 증가한다. 그것만으로 운동시의 신경세포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을 증가시킨다. 『유산소운동은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 신경전달물질을 늘린다. “뇌 속의 흑질(黑質)세포가 사멸함으로써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격감(激減)하면 파킨슨병을 일으킨다” (주) 유산소운동인 러닝도중에 기분이 상쾌해 지는 것을 ‘러너즈 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주의력도 함께 증가한다.』

▲프리레디컬(활성산소)을 없앤다. 『몸 속에 모인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상처내거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며 아미로이드 베타단백을 쌓이게끔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유산소운동으로 다량의 산소를 받아들임으로써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다.』

그 밖에 뇌 속의 혈관을 재생시키거나 호르몬 밸런스를 가다듬는 등 유산소운동에는 많은 플러스 효과가 있으나 근력운동 등 무산소운동에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다. ㉔

다음호에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불리는 먹거리와 비타민, 그리고 세계의 뇌 과학자들이 연구의 지표(指標)로 삼고있는 넌스터디(nun study)에 대해 쓰려한다.

젊은 청년에게
두산이 하고 싶은
열두 번째 이야기

누구나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창의적이라는 말을 듣진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기 때문이죠
창의적인 사람은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의 공포를 이겨내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라이트형제의 첫 비행 장소

6·25 격전지 매봉 - 한석산 현장을 가다

본회 6·25참전 언론인회 육군 3군단 방문 격려

반갑게 맞이한 제3군단장

대한언론인회 김은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6·25참전 언론회(회장 박기병) 회원 37명은 8월 8일 오전 11시 국방부 후원으로 강원도 인제 소재 3군단 사령부를 방문했다. 사령부 건물 앞에 나상웅군단장(육군중장)이하 전 참모들이 도열해 반갑게 맞이했다. 나상웅 군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불굴의 군인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내신 선배님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영웅”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6·25참전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나군단장은 또한 “3군단 전 장병들은 성실히 군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하 부대는 최근 군 내부의 불상사들과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군에서 있는 일련의 불상사를 두고 마치 전군이 폭력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군은 이를 반면교사로 하여 더욱 철저한 전투훈련과 엄정한 군기를 확립, 강한 국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나군단장은 대한언론인회와 6·25참전언론인회에 기념품으로 편지봉을 배경으로한 사진 액자를 선물했고 김회장은 나 군단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오후엔 치열했던 매봉·한석산 전투 당시 순직한 호국영령들의 위령비를 찾아 헌화, 묵념하고 현리전투에 관한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의 설명을 들은 뒤 ‘일부 젊은 세대들의 왜곡 굴절된 안보 불감증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좌파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언론인회가 주창한 ‘국민 대각성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별행·지용우 본회 논설고문 낭독)를 발표했다.

자긍심 가득한 산악부대

육군 제3군단은 전방 군단 중 가장 넓은 지역, 그것도 험준한 산악지역을 방어하는 산악군단으로 매봉·한석산 승리부대라는 자긍심으로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소탕작전(68.11. 3-11. 25·전과 사살 50명 생포 2명),



본회 6·25참전 언론인 회원등 방문단이 3군단 사령부 건물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종북 척결 - 국민 대각성 운동 확산 촉구 성명서 발표



김은구 본회 회장(가운데)과 박기병 6·25참전 언론인회 회장(왼쪽)이 나상웅 3군단장(오른쪽)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매봉 - 한석산 호국영령의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다.



지용우 본회 논설 고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96. 9. 18-11.5·전과 사살 13명 생포 1명 집단자살 11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부대로 유명하다.

대통령(박정희 대통령) 1명, 국방장관 10명, 참모총장 11명을 배출했는가 하면 북한의 남침용 제 4땅굴도 발견(90년 3

성명서

대한민국은 현재 역사상 최고의 변명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포연이 사라지고 휴전협정이 맺어진지 61주년이 지나도록 분단의 원흉인 북한공산집단은 여전히 적화통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력확장에 광분하고 있다.

대한언론인회와 6·25 참전 언론인회 소속 옛 전우들은 오늘 6·25 전쟁당시 격전지였던 이곳 매봉·한석산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금후 북한의 점증하는 전쟁 도발과 적화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빈틈없는 국방 안보태세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정부는 일부 물지각한 젊은 세대들의 안보 불감증을 하루 속히 바로잡기 위한 대책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엎으려는 국내 종북좌파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강구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언론인회가 주창한 국민대각성운동의 전제는 지금 나라 안을 구석구석 좀먹어 가는 온갖 형태의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 보자는 것이 그 대전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운동의 전개는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거듭 천명한다.

2014년 8월 8일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 일동

월)했다.

매봉·한석산 전투는 강릉에서 1군단의 예비임무를 수행하던 9사단이 1951년 4월 25일부로 3군단으로 배속 변경되고, 5월 2일부로 9사단 30연대가 7사단 8연대로부터 작전지역을 인수, 수행한 작전이다.

매봉·한석산은 인제·원통에서 현리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가능하여 국군과 북한군 모두에게 중요한 고지였다. 6·25 당시 3군단 예하부대였던 9사단 30연대는 지리적 요충지인 한석산 남쪽에 위치한 매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12사단을 물리쳤고, 이 전투로 북한군 사살 895명, 포로 42명,

21면으로 이어집니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김선옥(金善玉)



1946년 6월 22일생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6, 406동 2601호 (대림e
편한세상 아파트) 010-9369-8603
〈경력〉 중앙일보 동양방송 프로듀서 입사(73
년) KBS 예능1국 프로듀서, KBS 라디오2국 부
주간, 라디오3국 국장, 라디오1국 국장, 라디오
제작센터장, 경인방송 대표이사, 한양대 겸임교수

엄영섭(嚴瑛燮)



1935년 8월 22일생
서울 광진구 광장동 585 현대아파트 802동 604
호 010-8779-2386
〈경력〉 일요신문 편집기획부국장, 한국경제신
문 편집국 서강하버드비즈니스 부국장, 한국경
제 신문 관리국 부국장, 한국경제신문 이사 대
우 관리국 총국장, 한국경제신문 사우회 회장

조원석(趙源錫)



1949년 9월 12일생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78, 308동 2403호 (동아 3
차아파트) 010-3708-3610
〈경력〉 KBS 프로듀서 입사,, 라디오 3국장, 라
디오 편성주간, 라디오 2국장, 라디오 제작센
터장, 라디오 제작본부장, 한서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방송대상 심사위원, 대한민국대중문화예술상 심사위원



故 소로 이해복 회우 1주기 추도식 모습.

故 이해복회우 추도식 엄수

8월 1일 오전 11시 서울 명
동 로얄호텔에서 기독교 의식
으로 거행된 이 자리에는 신
우식, 제재형, 조창화, 홍원기,
김은구 전·현회장과 강승훈,

고수균, 권도홍, 김귀제, 김영
일, 김윤재, 김준하, 남시욱,
맹태균, 박기병, 박실, 송호창,
오전식, 윤양중, 이병대씨 등
대한언론인회 회우들과 영락
교회관계자 및 가족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20면에서 이어집니다.

각종화기 347점을 노획함으로
써 장교들은 무공훈장을, 부사
관과 병은 모두 1계급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그 후 60여년이 지난 오늘
이곳 3군단을 찾은 이구열 원
로회우의 감회는 남달랐다. 이
구열 회우는 포병간부 30기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전선에
배치돼 3군단 9사단 29연대
OP 관측장교로 참혹한 전투
를 겪어야했다며 나군단장과
뜨겁게 포옹했다.

“일천구백오십일년오월 오
마치의 한을 품고 산하를 떠
도는 원혼을 달래어 여기 해
와 달을 머물게 했노라/ 백척
간두의 조국을 지키고자 스스
로 펼쳐 일어나 한점 부끄럼
없이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이여. 아 ! 어이 잊
으랴 통환과 비운의 교훈을/
백절 불굴 백전 백승 수사불
패(雖死不敗)하는 정예산악군
단의 결의를 다지노니 부디
고이 잠드소서(이하 생략).

처절했던 그날의 현리전투,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령들을
기리는 위령비에 새겨진 ‘통
환의 결의’가 심금을 울린다.

호국정신 일깨운 ‘을지전망대’

귀로엔 양구군청(군수 전창
범)의 안내로 편치볼로 유명
한 해안면 을지전망대를 찾았
다. 편치볼은 한국전쟁 때의
격전지로, 외국 종군기자가 가
칠봉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
마치 화채 그릇(Punch Bowl)
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
름이다. 6·25 전쟁당시 한국
해병대 제1연대와 미 해병대
제1사단은 이 지역을 확보하
기 위하여 북한군 1사단을 격
퇴하고 편치볼을 확보한 기록
이 선명하다. 대암산을 비롯한
이 일대에는 6·25전쟁 당시의
편치볼 전투, 도솔산 전투, 가
칠봉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전적비가 여러 개 세워져 당
시의 상황을 웅변으로 말해주
고 있다. 해안면에 위치한 을
지전망대도 3군단 관할이다.

이곳에 자리한 전쟁기념관

송두빈 원로회우 별세

송두빈 원로회우가 지병으로 8월 26
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33년 6월 5일 경남 함양에
서 출생해 경동중고교와 고려대 사학
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 신문연
구소를 수료했다.

1957년 동화통신사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투신한 고인은 동화통신사에서 경제
부차장 주일특파원 사회부장 경제부장 편집부
국장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73년 내외경제신
문으로 옮겨서는 취재부장 편집부국장 편집국
장, 코리아헤럴드 업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남북
조절위원회 평양분회담을 현지취재하기도 했다.
언론계를 떠나서는 한라그룹 상무이사 홍보실
장 전무이사, 한라환경산업 대표이사 부사장 상
임고문을 역임했다.

대한언론인회 이사, 관훈클럽 운영위원, 기자



협회 초대 부회장 등 언론단체에서 활
약한 경력을 비롯해 고대 언론인교우
회 초대회장,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
신문 사우회 회장, 고대 사학회 회장
등 사회 활동 또한 눈부셨다. 대한언
론인회는 28일 오후 4시 고인의 빈소
에서 추도식을 갖고 명복을 빌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대표 헌화를 올린 김은구
회장과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 회장, 추도사
를 낭독한 윤익한 헤럴드사우회 회장(본회 상
담역)을 비롯 고수균 김성배 김영효 남시욱 문
명호 박재권 송충섭 신우식 신현구 안광식 안
평선 유성렬 이도형 이억순 이태영 정기정 정
운종 조성국 최서영 한영섭 홍순일 황대연 회
우등이 참석했고 조용중 강승훈 김문진 오근영
한동희 이성춘 회우도 조문했다. [본문]

송두빈선배 명복을 빕니다

윤익한(본회 상담역·헤럴드 사우회회장)

얼마 전 선배님의 병실을 찾아 뵈
이 었그제 같은데 유명을 달리하셨다
는 비보를 접하게 되니 그저 황망할 뿐
입니다. 그토록 강건하고 소신에 찼던
선배님의 평소 모습이 병상에 누워계
신 안쓰러움에 겹쳐졌을 때 무엇이랴
형언할 수 없는 허탈감이 다가왔습니
다.

저를 보시자마자 헤럴드 사우회 근
황부터 어렵게 물어보셨습니다. 긴 말
은 선배님께 부담이 될 것 같아 삼갔습니
다만 사우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읽혀졌습
니다. 작년
에 헤럴드 사우회 회장직을 물려주신 선배로
서의 애정이겠지요.

종횡무진하던 청년기자 시절의 남겨놓은
술 한 일화들. 1950년 9·28 수복 직후 17살의 소년
병으로 참전하여 1953년 휴전 때까지 동부전선
이름 있던 전투마다 무용담을 남긴 역전의 용
사. “아군과 적군이 흰 방한복을 입은 채 참호
속에서 뒤범벅이 되었으나 날이 밝을 무렵 상
대를 식별할 수 없어 모자를 벗겨 까까중머리
이면 적군이고 스포츠머리이면 아군임을 알았
다”라는 백병전의 생생한 기억을 전해 들었을
때, 당신이 훗날 보여주신 주저없이 당찬 모습
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교에 대한 애착도 남달라 1991~94



윤익한 상담역이 조사를 읽고 있다.

년 중 고려대 사학회장을 역임하였고, 1981년부
터 19년 동안 고대 교우회보 편집위원으로 참
여하셨습니다. 1933년 경남 함양 출신인 선배님
은 한국기자협회 초대 부회장도 역임했습니다.

동화통신 시절 주일 특파원을 지낸 선배님은
일본어와 영어도 능통하여 언론계 활동을 폭넓
게 섭렵하셨습니다. 선배님은 오랫동안 몸담았
던 내외경제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여 코리아헤
럴드와 헤럴드경제(전 내외경제) 출신으로 구성
된 헤럴드사우회 초대회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날 대한언론인회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고 있는
참전언론인회 부회장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안계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귀중한 옛 이야기를 좀 더 많
이 들어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삼가
선배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 뿐입니다. [본문]

이희경 회우 별세

이희경 회우가 8월 17일 오전 지병
으로 별세했다. 향년 78세.

고인은 1936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과 서울대 신문대학원을
수료했다. 1957년 경향신문기자로
언론계에 진출한 고인은 경남일보 국
제신문을 거쳐 1963년 2월 동아일보 편집국 진
주 주재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고인은 동아일보 마산 울산 부
산 의정부 진주 등 5개 지방에 주재하
다 1980년 12월 편집국 교열부와 지방
부기자를 거쳐 편집위원 겸 기획실 기
획위원으로 재직하다 1994년 정년퇴직
했다. 김은구 회장은 8월 18일 오후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빈소를 찾아 조문
했다. [본문]

은 6·25 전쟁당시 격전지였던
9개 양구지구전투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전후세대들은 몰
론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국정
신과 6·25 전쟁의 의미를 일
깨워주고 있다.

양구 오면 10년은 젊어진다

양구(군수 전창범)는 지리적
으로 한국의 배꼽도시로 유명

하다. 2002년 5월 양구군 남면
도촌리가 국토의 정 중앙임이
밝혀지자 이를 기리는 배꼽축
제가 매년 열려 양구의 자존
심을 북돋우고 있다. 양구의
특산물이며 산나물의 제왕이
라 불리는 청정 무공해 곰취
축제도 양구가 자랑하는 한마
당 잔치다. 그래서인지 양구에
오면 10년은 젊어진단다.

그 곰취를 곁들인 산채 비
빔밥으로 유명한 청수골 식당
에서 우리일행을 반긴 양구
윤태용 부군수와 이기찬 도의
원의 친절한 접대가 고맙기
그지없다. [본문]

글 : 정운종 상임이사
사진 : 3군단 문화장교 황민재
대위

회우동정

가나다순

함경북도 청년회 수련대회 발대식



박기정(함경북도 지사·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회우= 지난 7월 18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속초지회 창설식에 참석한데 이어 8월 8일에는 함경북도 청년회 수련대회 발대식에 참석했다.

대전일보에 격주기고



박석흥(전 문화일보 편집국장대우)본보 편집위원= 대전일보 오피니언 페이지 ‘박석흥 세상보기’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가 정신’ 대상 시상



배병휴(경제풍월 발행인)회우= 경제풍월 창간 15주년을 맞아 8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의 집 취선관에서 제5회 한국의 기업가 정신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대상은 일양약품 정형식 명예회장과 CESCO 그룹 전순표 회장이 수상했다.

우남 이승만 애국상 수상



손세일(청계연구소장) 회우= 8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가 주관한 2014년도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수상했다.

‘브릿지경제신문’ 논설위원 선임



이규섭(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본보 편집위원= ‘브릿지경제신문’ 논설위원으로 선임됐다. ‘100세 시대의 동반자’를 기치로 9월 15일 창간. 대판 크기의 전면 컬러 28페이지로 발행되며 8면 분량의 섹션 ‘VIVA 100’을 제작해 매체의 정체성을 뚜렷이 한다. 지난 8월1일부터 온라인(opnion@viva.com)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 출연



이재원(전통문화연구회 이사) 본회 자문위 간사= 지난 7월 23일 회교문화권의 대표방송인 알자지라 영화방송국의 문화프로에 출연, 3시간 반 동안 녹화했다. 남산 한옥마을의 전통가옥에서 양반의 일상생활과 서예하는 모습을

보이고 유교전통가정에서 주부의 역할 등에 관해 설명했다.

KBS 시청자위원 위촉



이철영(전 KBS 부다페스트 특파원) 본보 편집위원= KBS시청자위원에 위촉됐다. 9월 1일부터 임무가 시작되며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반도 정세와 이승만 외교’ 토론회



인보길(이승만 포럼대표)부회장= 8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제1교회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와 이승만 외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IHB 방송매니저 위촉



정건일(전 축구협회 부회장)회우= 최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관방송(IHB)방송매니저로 위촉됐다.

인도네시아서 침술봉사



정재필(전 한국일보 사 진부차장)회우= 지난 6월 30일-7월 10일 자원봉사팀들과 함께 전기도 없는 해발 2천미터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침술 봉사를 하고 돌아왔다. 정 회우는 오래전부터 침술을 배워 주로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침술 봉사를 해왔다.

‘배설 선생’ 주제 특강



정진석(한국 외국어대 명예교수)명예회우= 8월 1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배설(배텔)선생 기념사업회(회장 김재원)주최로 열린 ‘배설선생공훈선양 학술강연회에서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영국언론인 배설 선생’ 주제로 강연 했다. 정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배설 선생에 관한 많은 자료를 발굴, 공개 해 참석자들을 감동시켰다.

월남참전 국가유공자증 받아



최종수(전 코리아헤럴드 사진부장)회우= 월남참전(종군기자)유공으로 지난 7월 7일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증을 받았다.(보훈번호 28- 12037066)

9월 건강포럼 20일 개강

다 음

7, 8월 휴식기간중 쉬었던 건강포럼이 다시 문을 엽니다. 이번달에는 통증치료의 권위자이신 조경복 박사를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초대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조 박사는 노년에 쉽게 배울 수 있는 ‘에너지 건강법’도 아울러 가르쳐 드립니다. 회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 사: 2014년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장 소: 이윤수 비뇨기과 홀
제 목: ‘턱 관절과 전신관계’
연 사: 조경복 의학 박사
문 의: 이보길 건강포럼 간사
010-4461-5657

회우 가족 동정



통일준비위원회에 위촉

제재형 본회 고문의 장남 제성호(사진) 중앙대 교수가 지난 7월 정부로 부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정치법제도분야)으로 위촉됐다. 제 교수는 또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 ‘건국의 발견’(대한민국사랑회 출판부)에서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GSK 한국법인 대표이사 사장에

홍원기 본회 명예회장 장남 홍유석씨(사진)가 지난 8월18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한국법인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홍사장은 미국 ‘위튼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미국 일라이릴리에 입사한후 ‘한국릴리’사장과 ‘한독테바’ 사장을 역임했다.



교향 시복식 진행 말아

김 현(여행 평론가) 회우의 장남인 김환수 신부(사진·천주교 서울교구 행정실장)가 지난 8월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한 124위 시복식과 명동 성당에서 거행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의 진행을 맡아 수고했다.

大韓言論 제작진용 개편

‘대한언론’ 편집회의가 지난 8월 11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려 9월호 신문제작에 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편집진 개편이후 처음 열린 이번 편집회의에서는 ‘100자 평’란 신설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새로 개편된 신문제작진은 다음과 같다.

* 논설고문 : 지용우 *편집고문 : 함

정훈 * 주필 : 문명호 * 편집위원장 : 성낙오

〈편집위원〉김영환 박석흥 유자효 유한준 이규섭 이철영 이흥우 전용호 정창기 최명우 최병요 최희조 호천웅

〈논설위원〉고두현 구종서 김윤곤 김진기 도준호 성병욱 안건혁 여영무 유재철 윤재홍 이광영 이석희 이성춘 조규석 최택만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고명진 회우=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서강로 1094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우 230-842) 010-7113-0091

김담구 회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089 1동 201호(방이동 한양 3차아파트)
(우 138-051)

김정일 회우= 017-534-4352

김주철 회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08 YM프라젠아파트 504호
(우 462-838)

김지용 회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 마길 18

박석흥 회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로 28길 20 105동 1604호
(도곡동, 도곡 1차 아이파크) 010-2398-2227

신정호 회우= 서울 은평구 불광동 2길 33, 1104동 704호
북한산힐스테이트 1차아파트

유한준 회우= 010-9329-3840

조규석 회우= 고양 일산동구 무궁화로 86길 25-16(정발산동)
e-mail kschosk@hanmail.net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팔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4년 7월 29일 부터 8월 28일까지)

고두현(14) 유진수(14)
박진서(14) 이상근(14)
박현태(14) 이희경(12,13,14)
송두빈(13,14) 인보길(14)
안종화(14) 최서영(14)

▶ 본회 인사 ◀



권다혜(權多慧·여)= 대한언론인회 사무처 사무원(8월 1일자)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金銀九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행복.희망을 만들어요



SGI는 日蓮大聖人 佛法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평화 · 문화 · 교육운동과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행복의 가치를 창조하는 대승불교단체입니다



영등포희망문화회관 남광주행복문화회관 해운대희망문화회관 통일로평화문화회관 경기도 이천평화공원 이케다 기념강당 화광신문사 제주한일우호연수원 진천연수원 행복유치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도

어떤 화려한 꽃잎도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세상을 담다

삼성 UHD모니터 UD970

삼성 UHD모니터 UD970의 리얼 화질을 확인하세요
www.samsung-monitor.co.kr



풀HD보다 4배 더 생생한 리얼 화질

삼성 UHD모니터 UD970



풀HD보다 4배 더 생생한
UHD 화질



전문 그래픽용 Adobe RGB 기준
99.5% 등 전문가용 컬러모드



정확한 컬러 교정 기술
H/W 캘리브레이션 엔진



10억 개의 컬러로 생생한
색상 표현 ※ 지사 실험치 기준

삼성전자

